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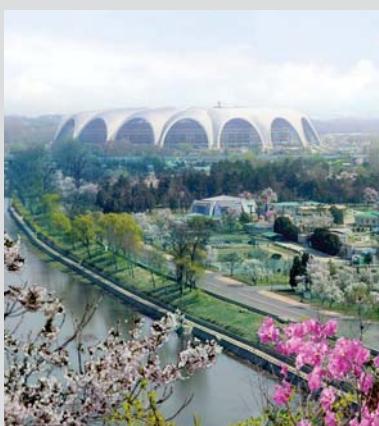




표지: 〈돌가위보!〉
주제 108(2019)년 촬영

화창한 봄날 화려한 민족옷을
차려입은 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30인민반의 최정국
가정이 민속놀이로 즐거운 한때
를 보내고 있다.

본사기자 김성철



뒤표지: 모란봉에서 본
릉라도

편집: 최은혁



02

차 례

하늘아래 첫 도시	2
질제고의 비결	8
검덕땅이 전하는 이야기	12
광물생산자들	14
높은 목표, 실천력으로	16
일화	
탄부를 영웅으로	18
수기	
아버지에 대한 추억	19
사진	
꽃계절	20
변함없는 조선, 자력갱생	2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중에서	
무장에는 무장으로	23
4월남북련석회의, 통일회합의 첫걸음	25
해 양절과 동포들	26
선물	
옥돌공예 《복숭아》	30
수기	
어떤 나라가 살기 좋은가	31

고향소식

제손으로 행복을 가꾸어가는 고장	32
조국의 품에 안겨	
꾸준한 노력으로	34
사·매력기선수	36
다수학에른 가는 지름길	38
희양생활을 보내는 농업근로자들	40
대 탐	
교육을 과학화할 때	42
사진	
누구나 배운다	44
민족무용의 춤가락을 살려	46
력사인물	
조선화의 전통적화법을 계승발전시킨 장승업	47
건축문화유산들을 파괴략탈한 죄악	48
민족문화유산 고구려무덤벽화 (2)	49
사화	
소년시절의 유류	50
강원도의 역사유적을 찾아서 (1)	51
민족의 향기	
봄철영양식품 - 호박	52
조국의 각 도 특산물을 (16)	53
명승 - 용골포	54
야화	
빨간 구슬과 파란 구슬	56
상식	
오랜 역사를 가진 조선기와	35
《의문보감》	39
조선속담 (강의성)	38
유모아	
교조주의자	53



15



27



33



41



45



51

하늘 아래 첫 도시

얼마전 우리는 지난해 10월에 개통된 혜산-삼지연행 열차를 타고 삼지연시에 도착하였다.

온 겨레가 조종의 산으로 부르는 백두산의 기슭에, 그것도 희한하게 전변된 산간도시에 들어섰다는 생각으로 하여 우리만이 아닌 승객들 모두의 얼굴에 희색이 만면하였다.

우리와 자리를 함께했던 량강도 혜산시 성후동 25인민반의 최철삼로인은 격정을 이기지 못한듯 마음의 끈을 풀어놓았다.

『울해에 들어와 난 이 나들이가 벌써 세번째라오. 아들이

새 집을 받았는데 집도 멋있지만 삼지연땅이 온통 별천지여서 이전에 못다한 구경을 또 왔다오. 여긴 부사땅이여서 옛날에는 화전민들이 농사지을 걱정보다 집지성을 걱정이 더 앞섰단다는데…』

말끝을 맷지 못하는 최로인을 따라 우리는 그의 아들이 산다는 봇나무거리의 16층짜리 아파트로 향하였다. 기존리론에 의하면 3층이상의 살림집을 지을수 없다면 이곳에 신비한 기술의 덕으로 고층건물이 일떠선 놀라움을 안고 14층 1호에서 사는 아들네 집으로 들어



섰다.

밖은 여전히 북방특유의 맵짠 날씨속에 눈가루가 날리였지만 전기난방화된 방마다에는 훈훈한 공기가 질었다.

최로인의 아들은 우리에게 여러칸의 방을 보여주며 가구로부터 세면장의 물가열기에 이르기까지 현대적인 비품들을 갖춘 집을 무상으로 받고보니 정



말 꿈만 같다고 토로하였다.
새 모습은 비단 여기서만이 아니였다.

아들의 손에 이끌려 방에 잊달린 로대에 나가보니 삼지연시

의 특색이 한눈에 안겨와 절로 탄사가 흘러나왔다.

백두산을 형상하여 지은 웅장한 백두산종합박물관, 현대적으로 건설된 삼지연들쪽읍



료공장과 다목적의 종합전람관, 온갖 편의봉사시설들이 갖추어진 밀림원과 천지원, 최신의료설비들이 그흔히 들어찬 삼지연시인민병원과 삼지연시과학기술도서관, 한겨울에도 즐길수 있는 수영장과 마노장식의 황토한증방 등이 있는 피로회복원, 푸른 인공잔디가 드넓게 펼쳐지고 다기능화된 체육관과 교실들을 가진 소학교와 고급중학교, 그런가 하면 불고기집, 막걸리집, 온반집, 체육기자재상점, 학용품상점, 샘물공급소 등 그 이름만 듣자고 해도 아름찬 수많은 각종 봉사망들과 호텔들…

최로인의 말 그대로 며칠을 두고서도 다 돌아보지 못 할 가지각색의 건축물들이 교양구획, 살림집구획, 상업봉사구획, 관광구획 등으로 나뉘여져 저마끔 현대문명을 뽐내고



있었다.

우리는 부풀어 오르는 흥심을 안고 청봉거리를 걷는 관광객들의 인파에 몸을 실었다.

알고보니 이곳에서 근 2 000리 떨어진 평안남도 평성시와 남포시에서 관광온 손님들이였다.

둥근 모양, 둱배모양, 다락식, 정원식 등 가는 곳마다 보는것마다 각양각색인 살림집들을 저마다 손전화기며 사진기로 촬영하는 그들의 행렬은 얼음조각 및 음악축전장, 동물사구, 산악자전거임대소, 야외체육공원, 관광객들이 자취하며 직접 씨를 뿌리고 수확의 기쁨을 맛볼수 있게 꾸려진 생태농업체험구를 거쳐 종합오락관으로 이어졌다.

어른들도 동심에 빠진듯, 처녀들도 본연을 잊은듯 수집음을 어딘가에 버리고 각종 전자오락기재들에 매달려 별의별 동





작을 드려냈다. 3D승용차오락 기재에 올라 경쾌하게 운전하는 총각들, 날씬한 몸매에 함마 치기오락을 하는 처녀들, 관성 유희기구를 타고 몸을 들썩거리는 아이들…

너도나도 좋아라 웃고 떠들었

다. 어디서나 웃음이 터져나왔다.

해발높이가 1621m나 되는 베개봉스키장에서는 고산스키, 관광스키, 거리스키, 초급스키 및 눈썰매주로마다에서 색색의 스키복을 입은 많은

사람들이 희열에 넘쳐 질주하고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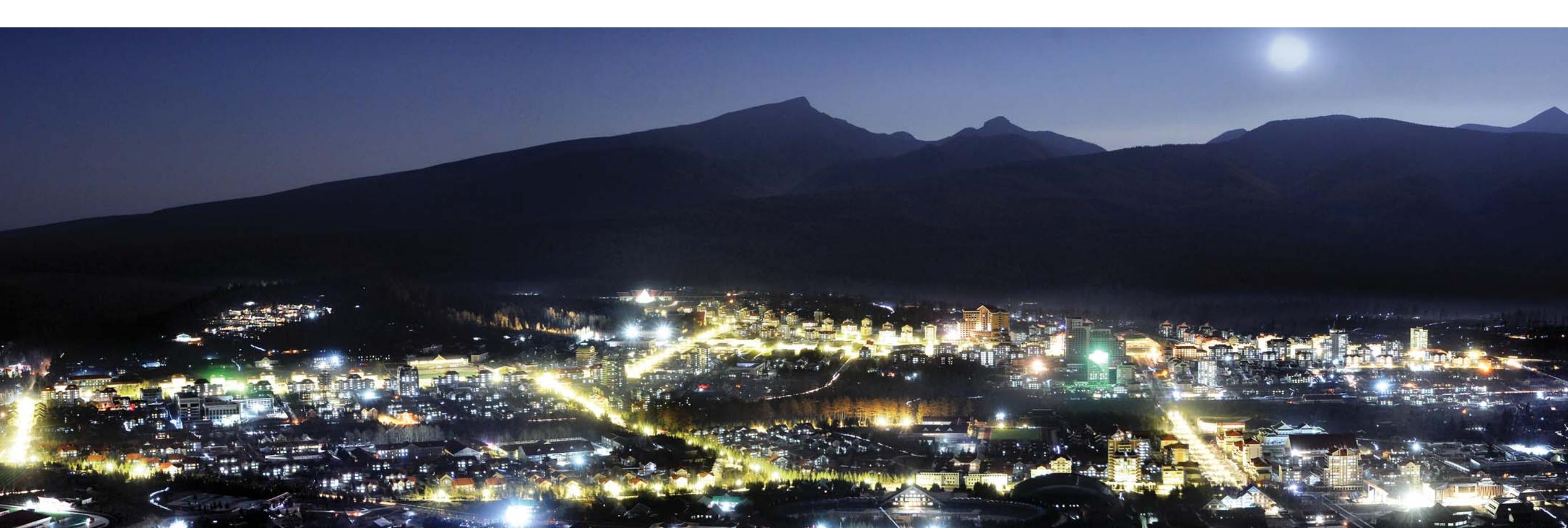
우리가 만난 이곳 봉사원 백향심은 밤에 불장식을 한 주로에서 삼지연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스케이팅을 멎은 더욱 이채롭다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주민들은 물론 손님들 누구나가 부럽없는 도시라고 감탄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명을 평범한 자기들이 너무도 쉽게 누린다고 생각하니 궁지스럽기도 하고 마음이 뜨거워진다면서 이 고마움을 잊지 않기 위해 백두산지구 혁명 전적지에 새겨진 항일선렬들의 발자취를 따라 답사하고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우리는 정겨이 사위를 둘러보았다.
하늘아래 첫 도시, 삼지연시

의 모습을 더욱 깊이 간직하고 저 이 땅의 증견자—설레이는 이깔숲의 속삭임을 다시금 음미해보았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홍정혁
주체109(2020)년 1월 상순 촬영



질제고의 비결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과학기술학습

조국땅 그 어디에서나 창조
의 열풍이 세차게 나래치고있
다. 그 가운데는 최근년간 질좋
은 감자가루증산으로 유명해
진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도

있다.

량강도 삼지연시의 포태산기
슭에 자리잡고있는 공장은 비
록 규모는 크지 않아도 생산능
력이 대단하다.



공장은 쟁쟁한 대학
졸업생들로 경영의 중
추를 이루고 종업원의
대부분이 20대, 30대
의 청년들로 꾸려져
있다.

탐구심이 높고 진취
력이 강한 이들은 에
네르기절약형통합생산
체계가 구축된 공장
의 능력을 보다 높이
기 위해 모두가 기술

혁신에 힘을 넣고있다.

매일 맡은 교대가 끝나면 과
학기술보급실을 찾아 생산에서
제기되는 기술실무적인 문제들
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리는것

은 이들의 어길수 없는 일파
이다.

종업원들의 집체적지혜와 열
의속에 최근에만도 증기에 의
한 감자껍질벗기기공정의 조종
프로그램개조, 절편칼날을 새
롭게 제작, 감자가루포집기제
작 등 수십건의 가치있는 기
술혁신안들이 생산에 도입되어
생산량이 해마다 늘어나고 품
질이 개선되고있다.

어디서나 흔히 볼수 있는 감
자이고 어느 나라에서나 많이
생산하는 감자가루이다. 하지
만 삼지연의 감자가루에 대한
수요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삼지연시에 있는 감자전문식
당 료리사 김향미는 말했다.

《세계적으로 장수식품으로





분석실에서

알려진 감자는 가루내여 음식
을 하면 더욱 효능이 높아지고
맛도 좋아집니다.

더우기 천연수림으로 둘러싸
인 고산지대의 감자맛은 유별
하여 이곳 감자가루로 만든 영

양쌀과 국수, 지짐, 짜배기, 송편, 우동, 파자 등은 손님들의 제일 가는 인기 음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오늘 삼지연감자가 루생산공장 종업원들은 우리가 못해 낼 일 하나도 없다는 노래 《달려 가자 미래로》를 즐겨 부르고 있다. 이 노래에는 가는 앞길에 난관이 가로놓인 대도 정면돌파하며 공장의 미래를 과학기술로 담보해 갈 종업원들의 지향이 담겨져 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조선일
주체 109(2020)년 1월 상순 촬영



갑자기 루로 만
든 여러가지 음식
들은 인기건강식
풀으로 되고 있다.





검덕광산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주체50(1961)년 4월

검덕땅이 전하는 이야기

검덕광업련합기업소는 조국의 굴지의 대유색 금속광물생산기지이다.

이 기업소의 광산들에 매장되어있는 연, 아연의 매장량은 대단히 많다.

기업소에서는 현대적인 물질기술적토대를 갖추고 한해에만도 천수백만t의 연, 아연광석을 캐내여 인민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다.

기업소가 오늘과 같이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큰

몫을 맡아할수 있게 된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주체50(1961)년 4월 5일 처음으로 기업소에 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광산의 채굴현장부터 찾으시여 돌가루묻은 광부들과 일군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며 그들의 로력적성과를 고무해주시였다. 그러시고는 가파로운 령길을 틀어오르시며 광산이 나아갈 앞길을 밝혀주시였으며 새 선광장의 터전도 잡아주시였다. 뿐

만아니라 쟁이 깊어지는데 맞게 압축공기를 따라 세우는 문제를 비롯하여 광부들의 생활문제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밝혀주시였다.

그후에도 그이께서는 기업소의 발전에 커다란 관심을 돌리시며 광산의 현대화를 실현할데 대한 방도를 제시해주시였다. 그이의 령도에 의해 광산에서는 짧은 기간에 많은 쟁파 제2선광장을 건설하였으며 광산작업의 기계화수준을 높여 제1차 7개년계획의 광물생산과제를 2년이나 앞당겨 수행하였다.

기업소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현지지도의 자욱도 새겨져있다.

주체64(1975)년 7월 1일 기업소를 찾으신 그이께서는 광부들이 일하는 곳이라면 아무리 멀고 험한 곳이라도 들어가보아야 한다고, 광부들을 찾아온 우리들이 막장에도 안 들어가고 그냥 돌아가면 그들이 얼마나 섭섭해하겠는가고 하시며 인차를 타시고 지하막장으로 끌내 들어가시였다.

험한 산봉우리에도 오르신 그이께서는 광산의 현대화에서 제기되었던 대형장거리벨트콘베아건설과 광산작업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광산의 당면생산과 전망생산, 채굴공업발전에서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강령적인 가르침을 주시였다.

이렇게 그이께서 광부들을 위해 지하막장에도 들어가고 높고 험한 산봉우리에도 주저없이 오르며 헌신과 로고를 바치신 사실은 오늘도 전설처럼 전해지고있다.

언제인가 검덕땅을 찾았던 이란의 한 관리는 이 모든 사실들을 감동깊이 들으며 『나는 오늘 한 나라의 령도자가 지하막장 한끌까지 들어갔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정말 감동을 금할수 없다. 그래서 조선인민은 자기 수령을 어버이라고 부르며 끝없이 따르는것이다.』라고 자기의 심정을 터놓았다.

광산과 광부들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

한 령도와 육친적인 사랑은 검덕땅에 놀라운 성과들을 안아오게 하였다.

광산의 건설자들은 지하로부터 지상선광장에 이르는 지하장거리벨트콘베아수송선 1, 2단계 건설공사를 완공한데 이어 년산 1000만t능력의 제3선광장을 단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일떠세웠다. 련이어 제3선광장까지의 장거리벨트콘베아수송선 3단계공사와 대규모의 수직갱, 지하락 광정, 수만m의 쟁도건설공사를 성과적으로 진행하여 광산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광산작업의 대형화, 현대화, 고속도화를 실현하였다.

그 나날 광부들의 생산열의도 비할바없이 높아졌다.

금풀광산 4.5갱 고경찬영옹소대원들과 박태선 영옹소대원들은 언제나 높은 목표를 정하고 집단적혁신을 일으켜 해마다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였으며 시대의 선구자로 전국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특히 고경찬영옹소대원들은 주체106(2017)년에만도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석 달 남짓한 사이에 끌내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축하전문을 받았으며 그후에는 두달 남짓한 기간에 또 한해분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하여 상반년도에 2년분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광산은 해마다 천수백만t의 광석을 다량락광, 다량운반, 다량처리 할수 있는 현대적인 대유색 금속광물생산기지로 전변되었다.

이렇듯 검덕땅의 전변의 력사는 절세위인들의 사랑과 헌신, 광부들의 자랑찬 로력으로 개척되고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

오늘 검덕광업련합기업소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정신을 높이 받들고 막아서는 모든 난관들을 정면돌파전으로 뚫고나감으로써 기업소에 깃든 절세위인들의 업적을 빛내여가고있다.

본사기자 강경수



광물생산자들

이어 2단계공사를 전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십리구간의 전차로선에 대한 전면개전, 제3선광장 부선계통개전, 발전소건설과 살림집건설 등 여러 대상공사도 지상과 지하에서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난판도 많았다. 하지만 가만히 앉아 그 무엇이 해결되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그들에게 통하지 않았다. 전진도상에 가로놓인 난판을 자력갱생의 힘으로 돌파해나가야 하며 그렇게 할 때 최악의 조건에서도 최상의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는 것이 이곳 광부들의 체험이고 결의이기도 하다.

21수직갱건설 1단계공사과정을 놓고도 그렇게 말할수 있다.

기업소에서 건설에 착수하였을 때 필요한 자금과 설비가 마련되어 시작한것은 아니였다. 하지만 그들은 무조건 해야 한다는 하나의 의지를 안고 주저없이 개건설에 달라붙었다. 기술자들은 천길막장으로 들어가 탐사를 거듭하며 고심어린 노력을 기울여 설계를 완성하였다. 로동자들은 중중첩첩 난판이 조성되고 때로 배수펌프의 고장으로 물이 차올랐지만 개건설을 순간도 중단하지 않았다. 그런가 하면 서로의 지혜와 힘을 합치고 내부에비를 탐구동원하여 방대한 설비와 부속품들을 만들어내였으며 많은 장비들이 없이는 불가능한것으로 되여있던 개안의 설비조립을 기발하고 대담한 착상으로 짧은 기간에 완성하였다.

지금 그들은 이런 기풍, 본래로 21수직갱건설 1단계공사를 끝낸데 이어 2단계공사를 비롯한

굴지의 유색금속광물생산기지의 하나인 검덕 광업련합기업소에서 생산전망을 더욱 확대해나가기 위한 정면돌파전을 세차게 벌리고 있다.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정신에 맞게 지난 시기 자기들의 사업에서 거둔 성과와 교훈을 총화하고 발전의 목표를 과학적이면서도 현실성있게 세운 이곳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지금 그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산에서는 이미 투자의 효과성이 높은 최량화, 최적화된 21수직갱건설 1단계공사를 끝낸데



새로운 채광방법에 대하여 소대원들과 토의하는 고경찬영웅소대장(오른쪽에서 두번째)

대상건설공사를 힘있게 내밀고 있다.

기업소에서 추진하고있는 대상건설들이 끝나면 그 효과성은 대단히 크다.

수직갱공사가 완공되면 기업소는 수천만t 능력의 안전한 채굴장을 가지고 연간광물생산을 2배로 늘릴수 있게 되며 자재운반과 통기보장, 광석운반의 자동화를 실현할수 있게 된다.

그리고 수십리구간의 전차로선에 대한 전면개전공사와 제3선광장 부선계통개건공사를 통해서도 부지와 로력, 원가, 에너르기를 절약하면서도

광물생산과 선광실수률을 훨씬 높일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게 된다.

보다 중요한것은 이 과정을 통해 검덕사람들이 자체의 힘으로 살아가는 법, 난판을 이기는 법을 체득하고 기어이 광물증산으로 나라의 존엄을 지키고 적대세력들의 제재책동을 짓부셔버리려는 의지를 굳힌것이다.

얼마전 이곳을 찾은 서방의 한 인사에게 기업소의 전망설계실 실장 김철은 『보다싶이 우리는 재험과 기술로 필요한 모든것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광물증산의 활로를 열어나가고 있다. 제재를 통해 적대세력들이 얻을것은 하나도 없을것이며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할뿐이다.』라고 배심있게 말하였다.

아무리 어려워도 전진의 정확한 목표를 내세우고 그 수행을 위해 돌진해가는 검덕광부들의 생산열의는 나라를 더 강하게 하고 자기 힘에 대한 확신을 낳게 하고있다.

글 분사기자 최기철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높은 목표, 실천력으로

천성청년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파업 관철을 위한 석탄생산에 총집중, 총돌격하고 있다.

이미 굴진을 앞세워 수십만t 능력의 채탄장을 마련하고 막장들에 벨트콘베아를 실현하여 석탄생산량을 부쩍 늘인 그들은 새해에 들어와서도 성과를 계속 확대하고 있다.

탄광에서는 예비 탄발조성의 1단계 목표를 빠른 기간에 수행한 경험에 토대하여 보다 큰 능력의 채탄장을 마련할 2단계, 3단계 목표를 내세우고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석수와 장마로 인한 쟁의 침수를 완전히 막기 위한 방대한 자연흐름식 배수공사를 줄기차게 벌리고 있다.

주목되는 것은 이곳 일군들과 기술자, 탄부들이 쟁안에 건설하여 놓은 장거리 벨트콘베아 수송선의 리용률을 최대한 높이는 것과 함께 조건이 불리한 쟁들에 사도화를 실현하고 그것을 지상으로 확대함으로써 탄광작업의 종합적 기계화 비중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그로 하여 석탄의 다량채굴, 다량운반과 함께 박토의 다량처리 능력을 훨씬 높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탄광에서는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을 힘 있게 벌리고 있다. 그중의 하나인 석탄생산량 자동측정 체계를 완성한 데 이어 통합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내밀고

있는 것이다.

이곳 일군인 조철호는 말하였다.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통합생산체계 구축사업은 지금 마감 단계에서 진행되고 있다. 처음 이 목표를 세우고 달라붙었을 때 걱정도 없지 않았지만 대중의 창조적 지혜와 힘이 합쳐지니 점령 못할 요새란 없었다. 이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는 일군들부터 현대 과학기술을 습득하고 생산 실천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실천적 모범으로 생산자대중이 이 사업에 적극 참여하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대중의 창조적 적극성은 운반 쟁 쟁장 김영근이 쇠바줄의 수명을 대폭 늘릴 수 있는 기발한 착상을 한 것과 벨트 쟁 로동자 리명남이 벨트 콘베아 조종장치를 개선하고 설비들의 기술관리를 과학적으로 진행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술혁신 안들을 련속 내놓은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탄광에서는 높이 세운 석탄 생산 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증산 경쟁 운동도 세차례 일어나고 있다. 그 어느 단위에서나 서로의 지혜를 합쳐 합리적인 작업 방법을 찾아내고 공구와 지구, 부속품들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도 힘 있게 벌어져 채굴과 채탄,

운반 설비 수리에서 성과를 가져오고 있다.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완강하게 실천해 가는 이곳 일군들과 기술자, 탄부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하여 탄광의 석탄생산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탄부를 영웅으로

해방된 새 조선이 두번째 봄을 맞이하였을 때였다.

나라의 주인된 환희와 기쁨을 안고 발구름소리높이 새 조국건설을 위해 내달리는 로동계급의 억센 기상은 그야말로 하늘을 찌를듯 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세계근로자들의 명절인 주체36(1947)년 5. 1절을 맞으며 전국의 중산경쟁운동혁신자들을 몸가까이 불러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새 조국건설의 앞장에 서서 핵심적역할을 하고있고 애국정신이 높은 중산경쟁운동혁신자들을 보고싶어서 불렀다시며 앞으로 새 조선의 선구자답게 일을 잘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하시였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한 탄부앞에 이르시였다.

그는 어느 한 탄광에서 일하고있는 김직현이라는 채탄공이였다. 내내 사람값에 들지도 못하고 《탄쟁이》, 《탄군》이라 업수이여기는 세상에서 기를 못 펴고 살아오던 그는 해방후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포해주신 혁사적인 로동법령과 중요산업을 국유화할데 대한 법령에 접하고 너무도 고마워 감격의 눈물을 흘리었던 평범한 로동자들중의 한사람이였다.

그 채탄공은 해방전에는 반년동안 걸려야 캐내던 석탄생산수준을 해방후에는 단 한달사이에 돌파하였다. 비상히 높은 속도로 1947년도 인민경제계획을 그해 4월 중순까지 다 수행한 그는 위대한 수령님을 몸가까이 모시는 뜻깊은 자리에 서게 되었던것이였다.

오랜 탄광로동의 흔적이 덮이고 겹친 몹시 거치른 그의 손을 다정히 쓰다듬어주시면서 죽지 못해 살아온 지난날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였다.

그의 이야기가 끝나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전 우리 나라의 모든 탄광, 광산로동자들은 인간이하의 천대와 멸시를 받으면서 제일 헐벗고 굶주리며 생활한 동무들이라고, 그러나 오늘 로동자, 농민이 나라의 주인된 우리 나라에서는 탄부들을 제일 귀중히 여기며 맨 앞장에 내세워준다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그의 손을 높이 들어 참가자들을 향하여 이 동무가 우리

나라에서 처음 세운 올해 인민경제계획의 자기파제를 벌써 완수한 새 조선의 선구자라고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잠시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두손에 축배잔을 하나씩 드시고 연회참가자들에게 우렁우렁한 음성으로 첫잔을 우리 공업의 전초병들인 탄광혁신자들에게 주자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시고는 그 탄부에게 축배잔을 취여주시였다.

그는 엉겁결에 한걸음 뒤로 물러섰다. 나라를 찾아주시고 탄부들에게 사람다운 생활을 누리도록 하여주신 위대한 수령님께 만수축원의 축배잔을 먼저 올리는것이 응당한 도리인데 그 반대로 되었으니 그는 너무도 황송하여 몸둘바를 몰라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큰소리로 웃으시면서 탄부들은 용감하고 담이 큰 대장부들인데 어서 잔을 내라고 권하시였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천길땅속에서, 인정이라고는 꼬물만큼도 없는 착취계급들의 채찍 밑에서 성미가 거칠어질대로 거칠어진 그였지만 이때만은 솟구치는 뜨거운 눈물을 겉잡을 수 없었다.

한 탄부에게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믿음과 사랑은 그후에도 뜨겁게 흘렀다.

조국해방전쟁이 끝난 후에는 땅속에서 일하는 동무가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아보면 얼마나 좋아하겠는가고 하시며 다른 나라에 휴양을 가는 명단에 친필로 그의 이름을 써넣어주기까지 하신 어버이수령님이시였다.

진정 어버이의 따뜻하고 은정깊은 사랑과 신임에 의해 그후 김직현은 2중로력영웅으로, 큰 탄광의 지배인으로까지 성장하였다.

이것은 비단 탄부 한사람에게만 차례진 영광과 행복이 아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의 광부, 탄부들 모두를 사회주의건설의 전초병으로 내세워주시고 그들의 로동과 생활, 건강에 대하여 친부모의 정보다 더 극진한 사랑으로 세심히 돌봐주시며 끝없는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본사기자



아버지에 대한 추억

저택으로 갈 때 나는 무엇이나 다 화려하고 훌륭한것들로 꾸려져있는줄 알았다.

그러나 한 나라 수령의 저택이라고 하기에는 믿기 어려울만치 너무나도 검박하고 평범하였으며 식사도 보통사람들과 다를 바없이 매우 검소하였다.

그러는 우리들의 마음을 다 아신듯 그이께서는 인민들이 행복하면 그저그만이라고 하시며 너희들이 어서 커서 나라의 역군이 되여야 한다고 앞날을 축복해주시였다.

그뿐이 아니였다.

그후 또다시 우리를 저택에 부르신 그이께서는 나와 두 동생의 소질과 취미를 묘해하시고는 언니는 사범대학 3학년에 편입하여 공부를 더 하고 영옥이는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부에 가서 공부하라고 하시였으며 동생인 영실이가 군대에 나가겠다고 하자 그거 좋겠다고 하시며 미소를 띠우시였다.

그리고 막내인 영희는 외국어를 시키자고 우리 형제의 전망문제를 놓고 오랜 시간 의논해주시였다.

정말 친아버지보다 더 웅심 깊고 친어머니보다 더 따뜻한 그이품에서 우리 4형제는 세상에 부러운것없이 자랄수 있었으며 나라의 일군들로 성장하여 값높은 삶을 빛내일수 있었다.

참말로 나는 머리에 흰서리가 내려 손자들을 거느린 오늘에도 궁지높이 말한다.

위대한 수령님은 우리들의 진정한 아버지이시라고.

평양시 모란봉구역
북새동 친영옥

제30차 전국사진경연작품들중에서



꽃 계절

사진 박재경

변함없는 조선, 자력갱생

지난해 외국의 어느 한 대학교수는 조선을 방문하면서 받은 자기의 감상을 이렇게 평하였다.

『조선을 찾았을 때 알고 싶었던 핵심 문제는 <국제사회>의 제재에 조선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였다. 그렇지만 가져간 명제 자체가 무색하리 만큼 조선이 보여준 변화는 불가사의하게 궁정적이었다. 파연 <사상 전례 없는 제재>를 받는 나라인지 의심이 들 정도로 생기가 돌았다.』

그가 말한 그 『불가사의』의 근원은 파연 어디에 있는 것인가.

흘러간 주체108(2019)년의 조국의 모습이 그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다.

남들 같으면 하루도 지탱하지 못하고 물려았을 혹독하고 위험천만한 격난속에서 조선로동당은 자력갱생로선으로 사회주의 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기적을 안아왔다.

적대세력들이 제재 항복만을 들어다보며 조선이 더는 견디여내지 못할것이라고, 조선의 힘에도 한계가 그어질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을 때 조국에서는 파연 어떤 눈부신 현실이 펼쳐졌는가.

백두산기슭의 삼지연시가 현대문명이 응축된 사회주의 산간문화도시의 본보기로 천지개벽되고 양덕의 산간벽지가 인민의 리상을 꽂고 있는 온천문화휴양지로 변모되었다. 북방의 동해기슭인 중평지구에 대규모의 남새온실농장과 현대적인 양묘장이 일떠서는 등 선진문명의 창

조물들이 도처에 일떠서 인민이 향유하게 되었다.

세계는 경탄했다. 『땅에서 솟아올랐나? 하늘에서 내려앉았나? 이렇게도 빨리 달라질수 있단 말인가.』, 『은빛설경속에 키돋움하는 거리들은 세계 유명도시들을 무색케 할 정도이다. 도저히 불가사의한 일이다.』라고.

사회주의선경의 황홀함만이 아니었다.

왕가물과 태풍의 변덕에도 협동벌마다에 대풍이 펼쳐졌고 인민의 집집마다에 바다향기가 흘러들었다.

세계군사학계가 놀라리 만큼 초대형방사포를 단 6개월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개발하여 주체조선의 국방력을 남김없이 시위하였다.

이 모든 성과들은 결코 우연이 가져다준 결과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력갱생을 번영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사회주의건설의 일대 양양기를 열어나간 조선로동당의 특출한 령도실력이 안아온 결실이다.

돌이켜보면 조선로동당은 사회주의건설의 전력사적과정에서 언제나 자력갱생을 투쟁의 기치로 내세웠다.

자력갱생만이 민족의 존엄을 빛내이고 국가의 번영을 이루 해나갈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류례없이 간고한 항일의 날에 백두에서 개척된 자력갱생의 전통을 이어 조선로동당은 빈터우에서 사회주의를 일떠세우면서 남의 도움을 받는 쉬운

길이 아니라 자력갱생의 헐치 않은 길을 선택하였다.

언제 한번 절대로 남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고 이 땅에서 제 것을 가지고 제힘으로 땃떳하게 살아가는 법을 체득하였다.

간고한 고난의 행군시기에도 조선로동당은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반공화국책동을 짓부시며 자기의 내부적 힘을 부단히 강화하여왔다.

허리띠를 조이면서 이룩된 소중한 자력갱생의 창조물들이 오늘 비약의 도약대가 되었다.

자력갱생의 힘은 이 땅우에 막강한 잠재력을 가진 자립적 민족경제를 일떠세웠다.

지난해말 조선로동당은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활로를 열기 위한 정면돌파전을 강행하는데 대한 전략적로선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오늘날 적대세력들과의 대결이 자력갱생과 제재와의 대결로 압축되어 대결그림을 더욱 명백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체의 위력을 강화하고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값진 재부들을 더 많이 창조할수록 적들은 더욱더 커다란 고민에 빠지게 될것이며 사회주의승리의 날은 그만큼 앞당겨질것이라는것이 조선로동당의 확고한 의지이다.

전진을 가로막는 시련과 역경이 크면클수록 조선로동당의 혁명한 령도가 있어 더 큰 승리를 안아올것이라는것이 세계앞에 보여주는 주체109(2020)년의 조선의 모습이다.

본사기자 김성경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중에서

무장에는 무장으로

(전호에서 계속)

나는 그때 혁명의 퇴조기를 운운하는 최동화의 모습을 통하여 전세대 공산주의자들과 우리의 근본적 차이를 느끼였다. 그들과 우리와의 모든 차이는 결국 인민대중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데서부터 산생되었다고 말할수 있다. 같은 리상과 목적을 추구하면서도 우리와 그들이 서로 힘을 합치지 못하고 남남처럼 지낸것은 바로 그 차이때문이였다.

나는 최동화에게 말했다.

『역설이라고 판단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인민대중이 일제의 침략에 굴복하지 않고 폭력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혁명의 고조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고조기를 놓치지 않고 추수투쟁을 끝낸 다음에는 곧 대중을 더욱 각성시키고 조직화해서 항일투쟁을 더욱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대세가 어떻게 되여 가든 이 결심은 변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을것입니다.』

최동화는 더 말을 못하고 쓴입을 다시며 돌아갔다.

최동화와 같은 사람들이 혁명적 폭력의 불리성을 운운하면서 우리에게 제동을 걸었지만 우리는 자신이 선택한 주로를 조금도 리탈하지 않고 신심에 넘쳐 추수투쟁을 지휘하였다.

10여만명의 간도농민들은 1931년 9월부터 그해말까지 일본군경들과 반동군벌의 야만적인 탄압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피어린 투쟁을 벌리였다.

이 투쟁과정에 조선민족의 영웅적기개를 보여주는 전설적인 일화들이 수많이 창조되었다. 개구지방인민들이 시위도중 두만강얼음우에서 일만군경들과 벌린 육박전에 대한 이야기는 한동안 만주지방사람들의 심혼을 흔들어놓은 화

제거리가 되여 돌아갔다.

녀성투사 김순희의 극적인 최후에 대한 일화도 추수, 춘황투쟁의 불길속에서 태여났다. 김순희는 약수동의 적위대 대원이였고 추수투쟁위원회의 위원이였다.

약수동에 나타난 《토벌대》놈들은 만삭이 된 그의 배를 총끌으로 쿡쿡 찌르며 배속에 있는것이 무엇인가고 물었다.

김순희는 자기를 에워싸고있는 일본수비대원들과 형사관 경찰들을 쏘아보면서 『잘 낳으면 임금이구 못 낳으면 대문전거리를 지나다니는 너같은것들이다.』라는 유명한 대답을 하여 적들을 놀라게 하였다. 나중에는 조직의 비밀을 고수하기 위해 자기의 혀까지 끊어버리였다. 그는 적들이 싸지른 불속에서 22살의 아까운 꽃나이를 마치였다.

추수투쟁은 농민들의 승리로 끝났다.

이 투쟁을 통하여 동만지방인민들은 신심을 얻었다. 그들은 처음으로 투쟁의 승패가 대중자신의 불굴의 의지와 지도방법에 결정적으로 달려있다는것을 심각하게 깨닫고 추수투쟁을 승리으로 인도한 새 세대의 청년공산주의자들을 경이적인 시선으로 쳐다보면서 그들의 주위에 굳게 결속되었다.

대중은 추수투쟁의 승리를 통하여 5.30폭동이 실패한 원인을 스스로 찾아냈으며 폭력의 량이 결코 투쟁전파를 결정하는 기본요인으로 되지 않는다는 진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확고히 믿게 되었다. 5.30폭동이 실패한 원인이 폭력이 적게 투하된데 있지 않았던것처럼 추수투쟁이 승리한 요인 역시 폭력이 많이 투하된데 있지 않다는것을 모두가 다 잘 알게 되었다. 폭력은 결코 만능이 아니였다. 그것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뿐이였다.

정의로운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정당하고 분

별있는 시기적절한 폭력만이 그것을 털어쥔 사람들에게 승리를 기약해줄수 있다. 오직 그런 폭력만이 사회를 개조하고 혁신발전을 추동하는데 참답게 이바지할수 있는것이다. 우리는 다만 이런 폭력만을 지지 할뿐이다.

문제는 대중을 어떻게 동원하고 조직하며 지휘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새 세대의 공산주의자들은 하나의 모범을 창조해 놓은셈이였다. 추수투쟁은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을 밀접히 결합시키고 평화적방법과 폭력적 방법을 적절하게 배합하면서 시종일관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적을 피동에 몰아넣은 독특한 투쟁이였다. 다음해 봄에 있은 춘황투쟁도 이런 투쟁이였다고 말할수 있다.

추수투쟁을 통하여 조중인민들의 단결이 강화되고 조중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뉴대가 공고화되었다.

추수투쟁은 인민대중을 각성시키고 단련시키는 훌륭한 계기로 되였다. 이 투쟁대오에서 소박한 보통사람들이 투사로, 혁명가로 자라났다. 동만의 혁명조직들은 추수투쟁에서 훈련된 수많은 핵심들로써 자기의 대오를 튼튼히 꾸려나갈수 있게 되였다. 그런 핵심들이 마련된것은 미구에 도래하게 될 무장투쟁을 위해서도 다행한 일이였다.

추수투쟁과정에서 배출된 수많은 청년혁명가들이 후날 동만의 각 현들에 조직된 유격대의 골간으로 되였다.

나는 추수투쟁을 지도하면서 무장투쟁에 대한 구상을 계속 심화시켜나갔다. 투쟁속에서 발현되고있던 동만인민들의 대중적영웅주의와 불굴의 투쟁정신은 새로운 단계의 혁명로선을 모색하고있던 나를 무한히 고무해주었으며 우리가 일단 무장을 잡고 일제와의 협전을 벌리게 되면 대중이 반드시 우리를 지지성원해나서리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였다.

추수투쟁의 불길이 온 동만땅에 번져가고 있던 1931년 10월에 나는 함경북도 종성지방에 잠깐 다녀왔다. 내가 종성에 나가게 된것은 국내동무들을 만나 무장투쟁문제를 논의하고 륙

읍일대에 파견되어 활동하는 공작원들을 소환하여 그들에게 무장투쟁과 관련된 중요한 임무를 주자는데 있었다. 나를 종성까지 안내한것은 채수항과 오빈이였다.

종성은 채수항의 고향이였으며 거기에는 그의 처가가 있었다. 그의 선친들은 구한국말기 까지 거기서 살았다. 중조할아버지는 종성좌수의 벼슬을 지냈다. 채수항이네 일가가 조국을 떠나 화룡현 금곡땅으로 이주한것은 《한일합병》 직후였다.

채수항은 간도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였으나 항상 어린시절의 꿈이 묻혀있는 고향땅을 그리워하였다. 그는 나와 함께 종성으로 건너갈 때마다 기쁨을 걸잡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의 기분상태가 별로 침울해보였다.

나는 추수투쟁의 파도가 채수항의 집 날가리도 헐어간 모양이라고 생각하면서 넌지시 물었다.

《채동무네도 수탈의 대상이 된게 아니요?》

채수항이네 집은 부유한 지주가정이였다. 그의 아버지는 가난한 사람들이 풍지 않게 보는 덕신사 사장의 자리를 차지하고있었다.

《수탈은 무슨 수탈, 우리는 농민들이 요구하기 전에 3,7제의 비률로 밭에서 직방 곡식을 나누어주었소.》

《현당서기네 가정이 다르긴 달라. 그런데 왜 얼굴빛이 그렇게 어둡소?》

《일부 사람들이 나더러 아버지를 설복하여 사장직을 그만두게 하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그제의를 받아들이지 않는구만.》

채수항은 자기 아버지가 혁명조직의 위임을 받고 덕신사 사장의 자리를 맡아보고있다는 사실을 모르고있었다. 규률이 규률이니만치 아버지는 그 내막을 아들에게 깨닫힐수 없었다. 그러니 채수항이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아버지에 대해 민망스럽게 생각하는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였다.

(다음호에 계속)

4월남북련설회의, 통일회합의 첫걸음

조국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민족대단결을 이루는것이다.

조선민족이 주체가 되여 외세에 의존함이 없이 조국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민족대단결의 의지는 72년전 4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련설회의에서 처음으로 파시되었다.

주체37(1948)년 4월, 당시 조선의 북파 남의 정세는 매우 복잡하였다.

일제가 폐망하자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한 외세의 책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에는 하나의 강토와 민족이 분렬될 염중한 사태가 조성되였다.

바로 그러한 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북파 남의 정당, 사회단체대표들의 련설회의를 소집할데 대한 방안을 내놓으시였다.

이 발기는 나라의 통일을 바라는 전민족의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키였다. 북반부에서 련설회의소집을 지지하는 시위와 군중집회들이 열리고 남반부에서도 정당, 사회단체들, 각계층 인민들속에서 지지찬동의 목소리가 높아가고있었다.

허나 남북련설회의가 소집되기까지의 길은 결코 탄탄대로가 아니였다. 분렬주의자들은 민족주의정객들의 평양방문길을 차단하기 위해 갖은 위협과 공갈을 다하였으며 극우익민족주의세력들은 지난날 반공을 일삼은 파거로 하여 평양으로 선뜻 발길을 돌리지 못하고있었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의 민족대단결사상과 크나큰 도량, 넓은 포옹력에 이끌려 남조선의 민주인사들은 물론이고 우익계렬의 많은 대표들이 사선을 헤치고 저지마다 평양에로의 길에 나섰다.

주체37(1948)년 4월 19일, 이날 평양의 모란봉극장에서는 혁신적인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대표자련설회의가 개막되였다.

회의에는 북파 남의 56개 정당, 사회단체대표 695명이 참가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대책을 밝힌 《북조선정치정세》라는 보고를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회의에서 외세에 의해 조국분렬의 위기에 처한 이 염중한 때에 단결하여 투쟁하지 않으면 우리는 민족과 후손들에게 친추에 씻을수 없는 죄를 짓는다는것을 알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모든 힘을 다하여 통일적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며 민주주의적원칙에서 통일정부를 세우기 위한 거족적투쟁을 벌릴것을 호소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김규식, 조소앙, 엄항섭, 조완구, 최동오, 흥명희를 비롯한 정견과 주의주장이 서로 다른 남조선의 각계인사들을 만나시고 민족적단합을 위한 방도들을 밝혀주시였다.

련설회의에서는 남조선에서 전체 인민의 의사를 반대하고 나라의 일부 지역에서 강제실시하는 비법적인 선거인 단독선거를 단호히 반대배격할것을 결정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인민자신의 손으로 민주주의적원칙에서 진정한 통일정부를 세울것을 호소하는 《전조선동포에게 격려》이라는 격문이 발표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북련설회의이후 련설회의지도부성원들과 함께 평양의 대동강 쪽섬에서 민족단합을 위한 협의회를 가지시고 그들에게 조국과 민족이 있어야 당파도 있고 주의주장도 있을수 있다는것, 서로 다른 정견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한자리에 모여앉아 허심탄회하게 토의하면 나라의 통일성업에 이바지할수 있다는 철리를 밝혀주시였다.

평양을 떠나기에 앞서 완고하게 반공을 일삼던 김구는 오랜 기간 한시도 몸에서 떼지 않고 소중히 간직해온 상해림시정부의 인장을 꺼내놓으면서 그이께 《장군님, 조선이 정말 주인을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을 이끄실분은 장군님뿐이십니다. 나는 모든것을 장군님께 맡깁니다.》라고 말씀을 하였다.

그때로부터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통일회합의 길은 련연히 이어졌다.

조국통일운동이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확대발전하여 북파 남, 해외동포들을 망라한 조국통일범민족련합이 결성되였으며 여러차례 북남수뇌분들의 회담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어 6. 15북남공동선언, 10. 4선언이 채택되였다. 뿐만아니라 조선반도에 더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시대를 열어놓으려는 확고한 결심과 의지가 비낀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 북남군사분야합의서가 채택되였다.

참으로 72년전의 첫 통일회합은 오늘도 북파 남, 해외동포들을 조국통일과 평화번영, 애국애족에로 부르고있다.

본사기자



재중조선인총련합회의 주최로 중국의 길림육문중학교에서 열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7돐경축 보고대회

태양절과 동포들



다채로운 행사를로 태양절을 경축하고 있는 재중동포들 주체 105(2016)년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활동을 벌리신
사적지를 찾는 재중동포들 주체 99(2010)년

해마다 4월이 오면 조국인민들뿐만 아니라 해외동포들의 가슴가슴은 이름 못할 격정으로 설레인다.

중국에서 사는 우리 동포들만 보아도 이들은 민족재생의 은인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신 태양절을 맞으며 각지에서 다채로운 경축행사들을 진행하고 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의 주최로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이 모셔져있는 길림육문중학교에서는 성대한 보고대회가 열리고 심양과 단동을 비롯한 동포들이 많이 사는 여러 지방들에서는 사진도서전시회, 영화감상회, 경축공연, 결의편지 채택모임 등이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

모임들에서 참가자들은 한



태양절을 맞으며 길림육문중학교를 찾은
재중동포들 주체 107(2018)년

평생 전인미답의 길을 헤치시며 조국과 민족의 존엄을 수호하시고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며 그이에 대한 그리움으로 동포사회의 경축분위기를 돋구고 있다.

그런가 하면 재중조선인청년협회의 동포청년들은 길림시의 약왕묘, 북산공원을 비롯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은 재중동포들 주체 108(2019)년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의 날에 새기신 자욱을 따라 답사를 진행하며 애국의 대를 끗 꾸이 이어갈 마음들을 다지고 있다.
로씨야, 미국, 카나다 등에

있는 동포조직들도 태양절에 즈음한 다양한 주제의 모임들을 진행하고 있다.
동포들의 이 마음은 조국땅에서도 뜨겁게 흐르고 있다.
수많은 동포들이 조국을 방

문하여 만경대고향집과 만수대언덕, 금수산태양궁전 등을 찾으며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한없는 추억과 그리움으로 가슴설레이고 있다. 그리고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과 중요계



만경대를 방문한 해외동포들

기들에 동포예술인들이 평양에 모여 경축의 무대를 펼치고 있다.

진정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동포들의 신뢰와 경모심은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흐르고

글 본사기자 조선일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한 해외동포들





옥돌공예 《복숭아》는 중국 료녕성 조화 수출입공사 총경리 리춘화동포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80돐을 맞으며 주체81(1992)년에 그이께 삼가 올린 선물이다.

여러차례 조국을 방문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위인상을 직접 목격한 리춘화동포는 그이께서 장수하시기를 바라는 자기의 심정을 담아 옥돌로 복숭아를 만들 결심을 하였다.

그래서 예로부터 장수를 기원하는 복숭아나무에 한알만 잡수시면 장수하는 크고 잘 익은 복숭아들이 주렁주렁 옥돌로 형상하였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인양 붉게 피는 꽃을 나무 가지우에 형상하였다.

리춘화동포의 뜨거운 마음이 깃든 옥돌공예는 국가선물관에 보존되어 있다.

* * *

수기

어떤 나라가 살기 좋은가

최근 조국의 중부지역에 자리잡은 양덕온천문화휴양지가 국내는 물론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있다.

지난해 말 양덕온천문화휴양지가 준공되었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나는 첫 해외동포 손님으로 되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그 기회를 놓친 것 같다.

며칠 전 인터넷망에서 평범한 조국인민들이 양덕온천문화 휴양지에서 온천욕도 하고 스키도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들을 보았는데 그 순간 나의 가슴은 뭉클해지는 것 이였다.

보다 싫이 인민을 위한 정치를 펴나가는 조국에서는 세계적인 온천문화 휴양지를 건설하여 평범한 근로대중이 문명을 향유하도록 한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라면 평민들이 그토록 홀륭한 휴양지에 갈 수가 있겠는가.

나는 가끔 내가 사는 나라에서 사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파연 어떤 나라가 제일 살기 좋은가에 대해론 점을 둘 때도 있었다.

그때마다 나는 《우리 조국은 정말 살기 좋은 곳이다.》라고 말해주곤 하였다.

그러면서 조국에는 공해가 없으며 자식을 공부시킬 걱정, 병에 걸리면 치료받을 걱정이 전혀 없고 범죄가 없기 때문에 언제나 마음놓고 살고 있는데 대해 생동한 사실자료들을 거들어가며 이야기해주었다.

예로부터 삼천리 금수강산으로 불리워온 조국은 산이 좋고 물이 맑으며 공기가 청신하다.

사람들은 서로 돋고 이끌면서 화목하게 살고 착함과 부지런함을 잊지 않으며 자기의 노력으로 삶을 가꾸어 가고 있다.

물론 지금 적대세력들의 가혹한 제재로 말미암아 생활상 애로도 많고 경제수준도 높지 못하다. 그러나 사람이 살기 좋은 사회냐, 아니냐를 규정하는데서 경제발전이 결정적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조국에서는 먹고 입고 쓰고 사는 문제, 평범한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주택, 의료상방조, 교육 등이 모든 것을 국가가 책임지고 충분히 보장해 주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자유롭게 살며 잘 살고 못사는 사람이 따로 없다.

이러한 문제들은 사람이 살아가는데서 참으로 중요하다.

이와 반대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대낮에도 살인사건, 아이들의 유괴사건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 불안과 공포속에서 살고 어디에서 날아오는지도 모르는 총알에 죄없이 맞아죽는 사

람들이 한해에만도 수천명에 이른다. 그리고 많은 나라들에서는 일반사람이 아무리 평생 일한다고 해도 자기 로임만 가지고 변변한 자기 집 하나도 살 수 없다. 결론으로 보면 번쩍번쩍하고 화려하게 보이지만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는 사람들 사이에 덕과 정이 없어 찬 기운이 감돌며 서로 반목질시하고 부익부, 빈익빈이 만연하여 나날이 자살률이 높아지는 반면에 행복지수가 낮아지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가



발전된 것만은 사실이지만 사람들은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위험을 안고 불안속에 살고 있으며 때 없이 세계를 휩쓰는 금융위기로 하여 대혼란을 자주 겪고 있다.

하지만 조국은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사회인 것으로 하여 그러한 현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니 우리 조국을 어찌 사람이 살기 좋은 사회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결코 조국의 경제형편이 자본주의 사회보다 좋아서가 아니다.

국가활동의 첫 자리에 인민의 리익을 놓고 모든 것이 인민을 위해 복무하고 있기에 조국땅 어디에서나 인민들이 신심과 락관에 넘쳐있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내 비록 해외동포이지만 이러한 조국을 위해 심신을 바쳐가려고 한다.

제손으로 행복을 가꾸어가는 고장



농장에 꾸려진 농업과학기술보급실에서

동포들의 고향소식을 전해가는 우리의 취재 길은 중국 흑룡강성에서 살고있는 정승화동포의 고향인 황해북도 사리원시 미곡리에로 이어졌다.

해마다 풍년작황을 안아오는 고장이여서 리소재지에 도착한 우리의 눈길은 자연 끝간데없이 펼쳐진 미곡벌에로 향하였다.

거름을 가득 싣고 논배미들을 누벼나가는 뜨락또르들의 세찬 동음이 농장벌에 넘쳐나고 어려곳에서 벼모판만들기에 여념이 없는 농장원들의 일솜씨가 계절을 앞당겨오고있었다.

별의 운치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는 우리에게 송윤희관리위원장은 지난해에 방대한 건설공사를 하는 속에서도 정보당 다수확을 이룩하였다며 이렇게 말하였다.

『땅이 특별히 좋아서가 아닙니다. 고향땅을 남달리 사랑하는 우리 미곡리사람들의 진정이 풍년을 안아왔지요.』

그러면서 그는 미곡리사람들처럼 자기 고장, 자기 고향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아마 없을것이라고 하였다.

우리는 그 말의 의미를 미곡벌의 전경과 특색 있는 편의봉사기지인 미곡원이며 리인민병원과 유치원, 살림집 등 여러곳을 돌아보면서 다시금 새겨안게 되었다.

우리의 눈길을 제일먼저 끈것은 리소재지입구

에 자리잡은 미곡원이였다.

실내에 수영장과 탁구장까지 갖추어져있는 2층으로 된 미곡원은 안팎으로 멋쟁이건물이였다.

군도 아니고 자그마한 농촌리에서 자체로 이런 종합적인 봉사시설을 일떠세운것이 정말 놀라웠다. 아니 놀라움과 함께 의문이 더 컸다.

우리의 의혹을 풀어주려는듯 관리위원장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지난해 1월 관리위원회 긴급회의가 열렸다. 온 나라가 자기 마을, 자기 고장을 사회주의리상향으로 꾸려가고있는데 지난 시기 전국적인 모범농장의 기치를 들었던 우리 미곡리가 오늘 날 뒤져서야 되겠는가. 낡은것을 털어버릴 때가 되었다. 우리 손으로 마을을 한번 본때있게 꾸려보자.

미곡원건설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누구라 할것없이 너도나도 발벗고 나섰다. 건설도 하고 농사일도 하면서 밤낮이 따로없이 뛰여다녔다.

그의 이야기를 듣는 우리에게는 미곡원의 기둥 하나, 계단 하나가 자기 고향을 자기 손으로, 자기 힘으로 꾸려나가려는 이곳 사람들의 뜨겁고도 강렬한 의지로 안겨왔다.

미곡원에서만이 아니었다.

미곡리사람들은 자체로 온실과 축사, 양어장과 버섯재배장을 꾸려놓고 농장살림을 윤택하게 하고있었다.

21개 호동에 연건축면적이 1만m²의 온실에서는 해마다 300여t의 갖가지 남새들을 수확하고 있었는데 한겨울에도 농장원들이 그 덕을 톡톡히 보고있었다. 그런가 하면 온실에서는 300m 구간에 포도넝쿨을 조성하여 해마다 5t의 포도를 수확하고있었다. 이곳 관리원 김희숙은 원래 우리 고장은 쌀이 많이 나는 고장이기 때문에 미곡이라고 하였는데 이제는 파일도 많이 나는 살기 좋은 고장이 되었다고 하면서 지난해 포도

풍경이 참 볼만 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

집집마다 보통 20그루이상의 파일나무들을 심고 가꾸고 있는데 농장원들 모두가 전문가 못지 않은 파수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밖에도 작업반마다에 꾸려진 축사, 양어장, 버섯기지들에서는 농산과 축산의 고리형순환생산체계가 확립되어 생산성을 높이고 있으며 그것은 곧 농장원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였다.

올해에도 리에서는 과학농법을 틀어쥐고 다수 확열풍을 계속 일으키는것과 함께 리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건설계획도 높이 세웠다.

180여세대의 살림집건설과 이미 있는 살구동네, 추리동네의 살림집들을 개건 그리고 문화회관개건, 고리형순환생산체계가 도입된 다용도태양열온실건설…

목표는 높고 건설량은 방대하지만 미곡리사람들은 자기 사업에 대해 락관하고있다.



자연에너지기를 이용하고있는 농장원들

그들은 아름답게 변모될 고향의 래일을 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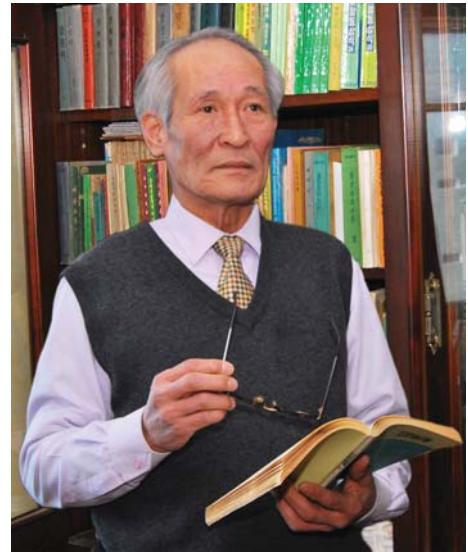
글 본사기자 김성경
사진 본사기자 방은심



자체로 건설한 온실



꾸준한 노력으로



정형성

『1973년부터 제가 대학연구사로 있었으니 이제는 48년이 되어옵니다.』

평양기계대학 교육학부 지도교원 정형성은 자신의 경력을 이렇게 간단히 말해주었다.

일본에서 태여난 그가 조국에 삶의 끊을 내린 것은 주체61(1972)년이였다. 조선대학교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던 그는 평양기계대학에 편입되었고 졸업후에는 대학의 연구사로 사업하였다.

희망대로 연구사가 되던 날 그의 시야에 먼저 안겨든 것은 부모의 모습이였다.

일본에서 그리 크지 않은 기업을 운영하던 아버지는 그에게 기계공업이 발전해야 나라가 강해진다며 기계를 배울 것을 권고하였고 후에는 조선대학

교로, 조국으로 등을 떠밀었다.

그는 아버지의 부탁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기계공학연구에 한생을 바칠 결심을 하였다. 그때로부터 그의 모든 사색은 연구사업에만 지향되었고 생활도 그속에서 흘러갔다.

대학의 연구사로 있을 당시 그가 처음으로 맡은 과제는 고속갈이돌을 개발하는 것이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기계공업부문

에서는 설비의 부분품표면을 연마하는 작업에서 갈이돌의 속도는 보통 30%였다. 이러한 속도로는 설비의 가공기 일을 원만히 보장할 수도 그 질을 높일 수도 없었다. 그는 일손이 부족하고 어려움이 많았지만 연구개발에서 펴타는 노

력을 기울인 보람이 있어 수지함침고속갈이돌을 개발하는데 성공하였다. 종전보다 속도가 2배로 늘어난 수지함침고속갈이돌은 가공속도가 빠른 것은 물론 그 강도도 높아 희천공작기계공장(당시)을 비롯한 전국의 많은 기계공장들에 도입되어 큰 응용을 냈다.

그 나날 연구사업은 계속되었다. 그속에서 기계설계의 현대화를 실현하고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설계설비인 XY작도기와 만능제도기 50대를 대학에 기증하여 대학교육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갖추는데 이바지하였고 그에 필요한 컴퓨터지원에 의한 설계기초축성방법에 대한 연구에서도 성과를 거두었다. 이외에도 무대형상의 신비로움을 더해주는 각종 장치들을 연구도입하여 김일성상계관 작품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새 세대 교원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정형성



『아리랑』이 세계적인 걸작으로 되게 하는데 이바지한것을 비롯하여 현실에서 제기되는 여러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였다.

과학연구와 후대교육사업에 자기의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는 그의 모습은 부피두더운 『자동설계기초』를 비롯한 교과서들과 도서들에도 그대로 어려있다.

그 나날 그는 대학의 연구사, 강좌장, 부소장, 학부장이라는 중임을 맡아 수행하였다.

20대시절부터 일흔이 된 오늘까지 수십년세월 사색과 탐구를 바쳐가며 기계공업발전에 이바지하는 수많은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해온 정형성.

말하기는 쉬워도 실천하기는 헐치 않은 48년이라는 세월에 실패와 동요도 있었지만 그는 나라의 기계공업발전과 인재육성사업에서 초심을 잊지 않고 변함없는 한길만을 걸어왔다.

『너희들은 이 아버지가 그



지나온 나날을 돌아켜보며

언제인가 그는 자기가 받은 발명증서들과 집필한 도서, 교과서들을 앞에 놓고 이제는 나

아직도 해야 할 일, 넘어야 할 언덕들이 많다.』

한생 변심을 모르고 한 직종에서 수십년세월 기계공학발전에 몸담그어온 그의 삶이야말로 궁지높은 한생이라고 말할수 있지 않겠는가.

글 본사기자 변진혁
사진 본사기자 김금진

상식

오랜 역사를 가진 조선기와

기와는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적인 지붕재료이다.

우리 나라에서 기와의 역사는 고구려에서 시작되었디. 고구려시기의 고분들에서는 수기와와 암기와, 련꽃무늬막새기와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기와들이 발굴되었다.

그후 고려시기에 불교가 장려되고 절들에서 기와의 수요가 높아지자 민간들에서는 기와들을 대량적으로 만들었다.

조선기와는 형태와 크기, 장식이 다양한것이 특징이다.

조선기와는 형태와 용도에 따라 바닥기와, 굽새기와, 롱마루기와, 추녀기와, 박공기와, 눈썹기와, 처마기와

등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만든 재질에 따라 진흙기와, 오지기와, 나무기와 등으로 나눈다.

우리 선조들은 기와 한장을 만들어도 온갖 정성을 기울이였다.

선조들은 건강과 장수 등을 바라면서 막새기와에 련꽃이나 롱파 같은 다양한 그림과 글을 새겨넣었다. 이밖에도 지붕롱마루의 량쪽모서리에 통이나 수리개의 꼬리를 형상한 치미를 세우고 마루끝에 여러 그림을 형상한 기와를 얹어 지붕의 곡선미와 경쾌감, 조형미를 부각시켰다.

이렇게 만든 합각지붕, 우진각지붕 등은 우리 나라의 고유한 민족건축술의 주요축면을 이루고 있다.

* * *

자매력기선수

이름: 림정심 키: 162cm

2009년 세계청소년력기경기대회 여자 58kg급 종합 2위

제30차 올림픽경기대회 여자력기 69kg급 종합 1위

제6차 동아시아경기대회 여자력기 69kg급 종합 1위

세부종목과 종합성적에서 대회신기록 수립

제31차 올림픽경기대회 여자력기 75kg급 종합 1위

2015년 세계력기선수권대회 여자 75kg급 종합 2위

끌어올리기에서 왼쪽골반이 탈구되었지만

추켜올리기에서 두번째 들기까지 성공

제18차 아시아경기대회 여자력기 75kg급 종합 1위

2019년 국제력기련맹 세계력기선수권대회 여자 76kg급 종합 1위

끌어올리기에서 세계신기록 수립

2019년 국제력기련맹 세계컵경기대회 여자 76kg급 종합 1위

현재까지 5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최우수선수로 선정

김정일상계판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력영웅,
인민체육인



이름: 림은심 키: 159cm

2016년 세계청년력기선수권대회 여자 63kg급 종합 1위

2017년 아시아력기선수권대회 여자 63kg급 종합 1위

제18차 아시아경기대회 여자력기 69kg급 종합 1위

2019년 국제력기련맹 세계컵경기대회 여자 71kg급 종합 1위

현재까지 3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최우수선수로
선정

공훈체육인



조선의 첫 여성2중올림픽금메달수상자인 림정심과 그의 동생 림은심은 조국인민들은 물론이고 세계력기애호가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다.

얼마전 우리는 자매력기선수에 대한 독자들의 호기심에 만족을 주고싶어 취재길에 올랐다.

같은 점과 다른 점

《정심이와 은심이가 정말 친자매가 옳은가요?》

감독 김춘희는 력기애호가들의 이러한 물음에

《그렇다!》는 한마디 대답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들은 비록 자매지간이지만 생김새도 체격도 성격도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국제경기에 출전하는 몸무게급도 서로 다르다.

성격상 정심이는 파묵하고 말이 없는 반면에 은심이는 생기발랄하여 주위사람들에게 늘 웃음을 안겨준다. 사내처럼 정심이는 눈물이 적지만 은심이는 눈물이 헤蟠 형이다.

정심이는 사색하기 좋아하고 영화시청을 즐기지만 은심이는 어릴적부터 가야금과 어은금을 잘

연주한 음악애호가이다.

언니와 세살차이이고 언제 한번 다툰적 없는 은심은 정심이를 남달리 따랐고 그로 해서 언니처럼 력기계에 서슴없이 뛰여들게 되였다.

소학교시절 은심이는 수업이 끝난 후 력기경기판에 달려가 언니의 훈련하는 모습을 유리창으로 들여다보는것을 하나의 즐거움으로 여기였다.

《너도 력기를 하고싶니?》

《예.》

초롱초롱한 눈에 자기의 희망을 비껴담은 어린 은심이를 보며 김춘희감독은 력기선수로서의 숨겨진 쪽을 발견하였다.

그들에게는 꼭같은 점들도 있다.

그들이 력기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오늘까지 감독은 인민체육인 김춘희 한사람뿐이다.

그들자매와 더불어 더욱 유명해진 김춘희감독은 《언니가 력기강자라고 해서 동생이 절로 우승자로 되는 법은 없다.》며 은심이에 대한 훈련강도를 절대로 늦추지 않았다.

그들은 지금 청춘거리 력기경기판의 훈련장에서 꼭같이 훈련하며 하루에도 몇차례씩이나 상상못할 정신육체적극한점을 함께 넘고있다.

정심이와 은심이의 같은 점에서 핵을 이루는것은 그들이 금메달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것이다.



정신력의 시험장

국제체육무대는 포성없는 전구와 같다.

이 전구에서 승리자와 패배자를 가르는 기준은 바로 정신력에 있다.

정심이와 은심이의 정신력은 값진 재부와 거액의 상금, 개인의 명예와는 전혀 인연이 없다.

국제체육경기무대에 출전한 그들은 구간봉을 억세게 틀어잡을 때마다 애국으로 높뛰는 자신들의 심장의 박동을 느끼군 하였다. 한것은 그들이 높이 쳐드는 무거운 구간봉에 조국의 무게가 실려 있다고 생각하였기때문이다.

주체104(2015)년 11월말, 미국의 휴스턴에서 2015년 세계력기선수권대회가 진행될 때였다. 이 대회는 제31차 올림픽경기대회 참가자격을 획득하기 위한 격전장이기도 하였다.

림정심선수는 자신만만하게 끌어올리기 첫째, 두번째 들기를 성공시키고 세번째 들기를 위해 경기장에 나섰다. 구간봉을 잡고 마지막동작을 수행하면 순간 그는 참을수 없는 고통으로 하여 구간봉을 떨 굳애 경기장에 쓰러졌다.

그의 몸상태를 진찰하고난 국제력기련맹 의료진이 경기에 더이상 출전할수 없다는것을 권고하였다. 정심은 탈구된 관절을 제자리에 맞추고 몸에 가해지는 참을수 없는 통통으로 하여 제대로 호흡도 못하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있었지만 추켜올리기경기에 계속 참가하겠다는것을 제의하였다.

(나는 10대에 공민의 최고영예인 로력영웅이 되었다. 이것은 조국이 나에게 준 사랑이고 믿음이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이것을 저버릴수 없다.)

폭발적인 힘으로 추켜올리기 첫번째, 두번째 들기를 성공한 그는 혼미해지는 의식속에서도 축하의 박수를 보내는 관중들의 환호소리를 들었다.

동생 은심이도 국제경기마다에서 우승의 영예를 련속 떨치였다.

공화국10대최우수선수로 여러해째 선정된 그들 자매는 정신력의 강자야말로 언제나 승리를 자기 손에 틀어쥘수 있다는것을 말없이 가르치고있다.

* * *

앞으로 제32차 올림픽경기대회까지는 몇달 남지 않았다. 2중올림픽우승자인 정심이와 그의 동생 은심이는 기어이 올림픽금메달을 조국에 드리고싶은 하나의 생각으로 가슴을 끓이고있다.

자기들이 매일매일 드는 구간봉에는 개인의 명예에 앞서 조국의 명예가 무겁게 실려있음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있는것이다.

글 본사기자 연옥, 사진 본사기자 리은별

16. 수학에 온 가는 지름길

세계적으로 나노기술에 대한 연구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조국에서는 수십년전부터 나노기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그것이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농업부문에서 나노기술을 리용한 비료, 농약들이 대대적으로 생산되어 지력을 높이고 있다.



조선속담 (강의성)

- 서리가 내려야 국화의 절개를 안다

국화는 서리가 내린 다음에도 꽃꽂이 살아 꽂을 피운다는데로부터 굳은 절개는 어렵고 힘든 때에라야 알수 있다는것을 비겨 이르는 말이다.

- 봉황새는 아무리 주려도 조는 먹지 않는다

절개가 굳고 의젓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져도

《그 어떠한 곤난과 애로가 닥쳐오더라도》라는 뜻으로서 무엇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결심할 때에 쓰는 말이다.

- 작두날에 올라서겠다

성미가 날카롭고 결단성이 있음을 비겨 이르는 말이다.

* * *



보당 사용량을 대폭 줄이면서도 운반과 보관, 리용에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 고심어린 길을 걸었다.

그 과정에 공업폐기물을 기초원료로 하여 농업생산에서 효과를 낼수 있는 나노규소비료연구에 성공하였다.

농작물의 넘어짐견딜성과 병견딜성을 제고하고 특히 랭해가 심한 지역에서 논벼뿌리의

발육과 질소흡수률, 논벼의 병저항성을 높여줌으로써 정보

당 소출을 평균 10% 정도 늘일수 있게 하는 이 나노규소비료는 사용량이 매우 적으므로 종전에 쓰이던 규소비료에 비하여 물동량이 1/1 000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수확은 수확대로 높은데다 생산공정이 간단하고 원가도 대단히 낮아 첫선을 보이자마자 농업근로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지난해까지 최근 4년동안에 연 85만정보에 도입된 이 비료는 첨단기술제품으로 등록되었

으며 농업근로자들이 관심하는 비료로 되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그들은 농업용나노살균제와 농업용나노기능성박막도 만들었으며 나노빛 합성강화제, 나노생물성장촉진제도 련이어 개발하였다.

《농업용나노살균제-1》호는 2. 16과학기술상을 받았으며 나노기술제품들은 전국나노기술부문 과학기술전시회들에서 첨단제품으로 등록되었다.

이곳에서 생산된 제품들을 써본 사동구역에서 사는 농장원 김은경은 《나노생물성장촉진제》를 비롯하여 농업나노기술 연구소에서 개발한 제품들은 다수 확에로 가는 지름길을 열어준다.》라고 말하였다.

최성룡소장은 제품을 생산하고 사용자들의 평가를 종합해보며 앞으로의 연구과제를 도출해내고 있다.

그는 《연구를 심화시켜 앞으로 적은 원가와 재료로 더 많은 알곡을 증수하게 할 결심이다.》라고 말하였다.

글 본사기자 엄향실
사진 본사기자 임칠명

상식

《의문보감》

이 책은 1724년에 편찬된 립상 치료편람형식의 고려의학고전이다.

당시 오랜 치료경험을 가진 주명선은 이미 출판된 고려의학책들이 체계가 복잡하고 내용이 각이하여 이해하기 힘든것을 알고 96종의 국내외의 학책들을 참고인용하여 여러 권으로 편찬하였다.

책의 제1권에는 중풍, 상한 등을, 제2권에는 혈병, 여러가지 출혈성

질병, 울증, 비만 등을, 제3권에는 황달, 간병, 건망, 어지럼증, 머리 아픔, 통풍, 심통, 복통, 암이비인 후파질병 등을, 제4권에는 팔아픔, 허리아픔, 옆구리아픔, 설사, 학질, 몽유, 변비, 위병, 오한, 혼수, 탈홍 등을, 제5권에는 부인병을, 제6권에는 어린이병을, 제7권에는 외파 질병과 해독 등을, 제8권에는 약성 목록과 378종의 고려약의 특성, 효

능, 법제방법을 주었다.

이 책에서는 110여종의 병들에 대하여 쓰고 매 병증마다 어떤 병에 속하는가, 그 병증의 원인과 증상, 효과적인 치료법을 서술하였다.

《의문보감》은 당시는 물론 오늘도 고려의학림상의 사들의 치료참고서로 널리 리용되고 있다.

* * *

휴양생활을 보내는 농업근로자들



겨울은 농민들의 휴양계절이다.

봄내, 여름내 농사로 땀흘리던 농민들이 한해농사를 마무리하고 휴양계절을 맞게 된다.

경치좋은 경암산중턱에 자리잡은 사리원시농민휴양소도 휴양을 하는 농민들로 만원을 이루었다.

한겨울 농민들의 휴양생활의

첫 일파인 아침등산부터가 계절의 맛 그대로 상쾌하다.

한것은 눈덮인 경암산의 설경이 등산의 멋을 한껏 더해주기때문이다.

온 한해 들판에서 보내다가 경암산의 맑고 정한 공기를 마시면서 산을 오르내리는 쾌감이란 쉬이 맛볼수 없는것이라고, 심신이 막 깊어지는것 같다

며 농장원들모두가 기쁨을 금치 못해 한다.

농민들의 휴양생활은 휴양소 안에서 더욱 이채를 띤다.

아득한 호실들과 여러가지 체육문화기재들, 편의봉사시설들이 갖추어진 휴양소의 실내는 휴양생들의 생활을 즐겁게 해주고 있다.

소장 원설향은 《농민들의 휴양기간은 1주일정도이다. 이기간에 여러가지 체육오락경기들이 진행되는데 그것은 그대로 농민들의 휴양생활을 다채롭게 해주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장기와 웃놀이경기도 볼만 하지만 남녀로 구성된 만금협동농장팀과 혁신협동농장팀사이 배구경기는 승벽내기로 더욱 고조를 이룬다.

팀을 응원하는 휴양생들의 응원열기는 휴양소를 떠들썩하게 한다. 두 협동농장의 농업생



산경쟁이 배구장에까지 그대로 미친듯싶다.

농민들의 휴양생활은 물놀이장에서 더욱 이채를 띤다.

서로서로 승벽내기를 하며 헤엄을 치는가 하면 물에 뛰어들기도 하고 덕수를 맞는 농민들에게 겨울철 휴양의 기쁨을 더해준다.

저녁이 되면 휴양생들은 서로 농사경험을 나누기도 한다.



이구동성으로 하늘만 밀고 농사를 짓던 시대는 옛말로 되고 지금은 과학농사, 집약농법으로 해마다 더 많은 알곡이 증수되고 농장살림이 늘어나니 농

민들의 생활이 유족해진다는 것이다.

만금협동농장에서 온 최명희 농장원은 《휴양의 나날은 길지 않아도 잊지 못할 즐거운 나날이였다. 정말이지 이번 휴양기간을 통하여 나라의 혜택이 얼마나 큰가 하는것을 다시한번 폐부로 느끼였다. 올해에도 농사를 잘 지어 래년에도 이곳에 또 찾아오겠다.》라고 자기의 심정을 터놓았다.

이것은 비단 그만이 아닌 농장원모두의 심정이기도 하다.

글 본사기자 김성경
사진 본사기자 방은십

주체109(2020)년 1월 상순 촬영



교육을 과학화할 때

- 교육연구원 부원장 김성일과 본사기자와의 대담 -

기자: 현시기 조국에서는 전반적 교육수준을 빠른 기간에 가장 발전된 수준에 올려세우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속에 교육체계를 개선하고 교수내용과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보다 적극화되고 있습니다.

교육연구원에서도 교육을 과학화하기 위한 연구사업에서 좋은 성과가 이룩되고 있다고 봅니다.

부원장: 사실 오늘처럼 인재가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직접적 요인으로 되고 교육이 사회 경제발전에서 초미의 문제로 제기된 때는 일찌기 없었습니다.

교육은 과학의 어머니, 국력을 과시하는 중요 징표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교육사업에서 성과를 거두자면 마땅히 인재양성의 합법적 요구에 맞는 과학적인 리론과 방법에 의거하여야 합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나라의 전반적 교육을 새로운 과학적 토대 위에 올려세우기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고등교육을 개선강화하는데서 제기되

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고등교육리론과 인재류형리론, 가시적인 성과보다 미래를 내다보면서 나라의 교육을 전망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교육전략리론, 이외에도 교육조종리론을 비롯한 현대교육과학의 새로운 기초리론과 분야들을 개척하고 그것을 계속 발전완성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들이 갖추어야 할 자질과 교육과학연구, 생산을 일체화하는것을 비롯하여 교육방법에 이바지하는 연구사업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기자: 지금 사회주의 강국건설장마다에서는 심도있는 전문지식과 다방면적인 지식, 높은 탐구능력과 응용능력을 지닌 창조형의 인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재를 키워내자면 교육내용을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원장: 옳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에서도 교육내용을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하는데 대한 문제가 강조되었습니다.

교육내용에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때 학생들을 주동적인 학습자, 탐구자로 되게 할수 있고 그들의 지적능력과 응용능력을 높일수 있습니다.

보통교육부문에서 새로운 교수방법을 창조하기 위한 연구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지만 초등 및 중등교육을 강화하여야 튼튼한 토대에 기초하여 대학들에서 유능한 인재들을 키워낼수 있는것입니다. 그런데로부터 주체106(2017)년 10월부터 평천구역 봉학소학교

4, 5학년 학생들에 대한 과목담임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해보았습니다. 봉학소학교에서 과목담임제형식의 확대도입을 위한 교육실험에서 얻은 경험과 성과에 기초하여 전국적인 실무강습도 진행되었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의 학습과정을 탐구과정, 지능발전과정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연구사업에서 중요한 계기로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실력평가와 시험이 철저히 지적능력과 창조적응용능력평가로 되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시험방법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령전교육에 도입된 전자교과서 주체108(2019)년 촬영



전국교육실험기구 및 교편불전시회, 교육지원전시회 주체108(2019)년 촬영



교육사업에서의 새로운 전환을 위해 노력하는 교육자들
주체108(2019)년 촬영

교과서와 참고서를 리용하는 시험과 컴퓨터와 결합한 필답시험의 그 실례입니다. 이러한 시험방법들은 학생들의 지적능력과 창조적능력을 정확히 판단할수 있게 될것입니다.

기자: 교육과학부문에서 좋은 성과와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이 실속있게 조직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나라의 전반적 교육과학사업을 빠른 속도로, 균형적으로, 통일적으로 발전시키는데서 좋은 작용을 하고있다고 봅니다.

부원장: 그렇습니다.

교육연구원을 중심으로 나라의 교육과학연구를 통일적으로 장악지도하는 정연한 체계가 선데 맞게 교육과학학회와 교육과학부문 심의위원회, 분과심의위원회의 운영이 활발해지고있습니다. 그러한 속에 제1차 전국교육과학성과전시회, 제4차 전국교육과학토론회 등이 개최되어 교육과학부문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이 널리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보기수업창조와 여러가지 교육지원프로그램들을 개발도입하고 교육용다매체편집물을 완성하여 교육부문에 보급하기 위한 사업들도 전개되고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더 많은 교육과학연구성과들로 교육강국, 인재강국화를 밀음직하게 담보해나갈것입니다.

* * *

누구나 배운다



전반적 12년제 의무 교육
의 해택 아래 배움의 교정에 들어서는 어린이들



과외 교육 시간에



경상 유치원에서



학습 열풍

주체 108(2019)년 촬영

과학 기술 전당의 열람홀



원격 교육 체계에
망라되어 학습하는
근로자들



민족무용의 춤가락을 살려



한영애

강원도 원산예술학원에는 근 40년간 민족무용 교육에 몸담고 있는 교육자가 있다.

그는 무용강좌 교원 한영애이다.

어려서부터 춤에 남다른 소질이 있던 그는 함흥고등예술전문학교(당시)에서 무용을 배운 후 강원도예술단 무용배우로 되었다.

무용배우로 활약하던 나날 그는 도예술단에서 창조한 혁명가곡 《남강마을녀성들》과 가곡 《금강산의 팔선녀》를 비롯한 여러 작품들에 주인공으로 출연하였다.

많은 사람들의 절찬속에 재능있는 무용배우로 촉망되던 그는 교육자로 방향전환하였다.

그때를 회억하며 그는 《물론 계속 배우생활을 할수 있었고 안무가로도 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민족무용을 학생들에게 배워주는 교육자가 되고 싶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렇게 하는것이 민족무용발전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는 민족무용의 춤가락을 후대들에게 똑똑히 심어주는것을 한생의 교육목표로 정하였다.

언제인가 기량발표를 앞둔 학생들의 무용작품을 지도하던 그는 동작수행에서 상체와 하체의 움직임이 조화롭지 못한 느낌을 받게 되었다. 원인은 학생들이 민족무용의 춤가락에 대한 깊은 파악이 없이 동작을 기계적으로 수행한데 있었다.

이를 두고 누구보다 생각이 많은 그였다. (률동이 섬세하고 아름다우며 부드러우면서도 기백이 있는것이 조선춤의 특징이다.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민족무용의 춤가락을 잘 살려나가게 할수 있을가.)

사색끝에 그가 찾은 방도는 룰동적호흡방법이었다. 룰동적호흡은 사람이 진행하는 호흡을 장단의 박자와 음악선률의 흐름과 결합시킨 방법이였다.

그는 룰동적호흡과 관련한 강의안들과 소론문들을 집필하면서 이 방법을 더욱 완성시켰다.

무용강좌 교원인 리효영은 학생들이 룰동적호흡방법으로 오랜 시간 춤을 추었는데 힘들어하지 않았다, 춤동작에서 무리하거나 꼬이는데가 없고 순간정지된 모양에서도 룰동이 지속되는감을 주었다고 이야기하였다.

실지 한영애의 지도를 받은 학생들이 전국적

후대교육에 친심하는 한영애



력사인물

조선화의 전통적화법을 계승발전시킨 장승업

장승업(1843년~1897년)은 개척한 우수한 작품들을 수많이 조선봉건왕조 말기에 조선화의 창작하였다.

《매화》, 《련못가의 물축새》, 《갈대와 계》, 《기러기》, 《매》 등은 그의 사설주의적창작화풍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그는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방황하다가 한성의 서화수집가인 리옹현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였다. 독학으로 그림공부를 시작한 그는 그림에 남다른 재주를 발휘하여 도화서 화원으로 뽑히였으며 한때 감찰벼슬도 하였다. 당시까지 전해지는 명화들을 탐구하고 피타는 노력으로 화법을 익히였으며 대상의 본질을 드러내는 생동한 형상의 화풍을 창조하였다. 그는 동물화와 정물화, 인물화를 잘 그렸는데 특히 사설주의적인 화조묘구

도분야에서 높은 발전의 경지를

등에서도 물골법을 능숙하게 적용하고 있는데 련꽃의 줄기와 연한 잎의 부드러운 질감, 갈대에 앉아 물속의 잔물고기떼를 노려보는 물축새의 살아움직이는 듯 한 모양을 생동하게 형상하였다. 이밖에 일곱마리의 말과

두 인물을 그린 《달리는 말》은 꽃과 새그림에서 적용한 압축된 수법파는 달리 가느다란 선을 써가면서 말의 특유한 기질과 동작을 실감있게 묘사하였으며 작품의 구도에 대한 화가의 대담한 시도를 잘 보여주고 있다.

《화조병풍》, 《마사도(달리는 말)》, 《가을》, 《풍경》, 《백선도》, 《골짜기》 등 그의 작품 100여점이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다.

* * *

인 범위에서 진행된 경연, 공연들에서 전문가들로부터 룰동호흡이 대단히 좋고 민족무용의 특성을 잘 살린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 나날 그는 《조선무용기초교육에서 호흡법을 체득시키기 위한 몇 가지 문제》, 《생활적인 표상을 통하여 룰동적호흡을 인식시킨 방법》을 비롯하여 10여건의 소론문과 수많은 강의안들을 집필하였으며 수십건의 무용작품들을 창작 창조하였다.

중앙과 지방의 예술단체와 교육기관들에서 활약하고 있는 제자들은 아직도 그가 조선춤을 배워주면서 하던 말을 잊지 않고 있다.

손끌, 발끌까지 룰동호흡이 넘쳐야 한다, 몸가짐가짐이 편안하고 우아해야 한다, 손과 발을 엿가락처럼 근기있게 펴고 굽혀야 한다. ...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만한 실력과 공적이면 얼마든지 학위론문을 쓸수 있지 않는가고 그에게 둔군 한다.

그럴 때마다 그는 웃으며 《학위를 받는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재능있는 무용가들을 더 많이 키워내는데 나의 생의 목표가 있습니다.》라고 말하곤 한다.

비록 소박한 말이지만 민족무용을 발전시키는데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가려는 그의 고상한 정신세계가 담겨져있다.

75살의 한영애교원은 오늘도 후대들에게 민족무용의 춤가락을 깊이 심어주기 위한 교육사업에 열정을 바쳐가고 있다.

글 본사기자 변진혁
사진 본사기자 김강무

건축문화유산들을 파괴·략탈한 죄악

지난날 일제가 조선민족에게 끼친 죄악은 이루 헤아릴수 없다.

일제는 조선에 대한 군사적 강점기 간에만도 조선의 말과 글, 조선사람의 성과 이름까지 빼앗은 것은 물론 조선의 국토와 바다이름, 시간마저 제멋대로 변경하였으며 조선민족이 조상대대로 물려온 귀중한 문화유산들을 닥치는대로 파괴·략탈하였다.

그 가운데서 건축문화유산들을 파괴·략탈한 죄악만을 보기로 하자.

오랜 역사적 과정에 창조된 조선민족의 건축유산은 매우 다양하고 풍부하였다. 일찍부터 조선민족은 슬기로운 건축술로 도시, 성, 각종 건물과 건축구조물을 창조하여 인류문화 발전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당시 조선민족을 철저히 노예화하며 민족성을 완전히 말살할 것을 국가정책으로 삼은 일제는 조선에 대한 침략을 개시한 첫날부터 군사적 통치 전기 간 건축문화유산에 대한 무자비한 파괴·략탈을 감행하였다.

일제는 무엇보다 먼저 건축문화유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건축문화유산은 물론 조선문화재에 대한 종합적인 파괴·략탈 대장을 만든데 기초하여 그 실행에 본격적으로 달라붙었다.

그것은 일제가 조선에 대한 침략을 감행하면서 봉건정부의 상징이며 대표적인 민족건축물의 하나인 왕궁과 기타 관청, 민가 등을 마구 파괴한 것으로

부터 시작되었다.

그후 일제의 파괴·략탈 행위는 조선침략이 본격화되면서 더욱 로골화되었다.

갑오농민전쟁을 구실로 조선에 기여든 일제 침략자들은 고종 황제를 협박하여 내정을 장악할 흥심밑에 1894년 5월 12일 저녁 경복궁에 달려들었다.

일제는 남대문이 닫겨있어 침범할 수 없게 되자 성을 허물고 남산을 넘어 성안에 침입하였으며 1894년 6월 20일 또다시 경복궁에 침입하여 문을 부시고 별전에 이르러 황제와 황후를 협박하면서 황궁을 파괴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그후 청일전쟁을 도발하고 조선을 전쟁마당으로 삼은 일제는 한성과 평양을 비롯한 주요싸움마당에서 포격과 몰사격으로 관청과 민가를 비롯한 수많은 건물들을 파괴하였으며로 일전쟁을 전후한 시기와 일제의 군사적 강점시기에는 더 로골적으로 파괴 행위를 감행하였다. 특히 경복궁을 비롯한 여러 황궁을 파괴 소각하기 위해 미처 날뛰었다.

일제는 궁궐 안에 남아 있던 정전인 근정전과 교태전, 경회루 등의 주요 건물은 물론 7만 2 000m²의 부지 안에 있던 기타 건물들을 모두 허물고 그 부지에 각종 진렬관을 새로 건설하게 함으로써 경복궁의 면모를 없애버리였다. 그리고 창덕궁, 덕수궁을 비롯한 여러 황궁도 파괴하였다.

일제는 경성과 평양을 비롯

한 주요 도시들에 군사적 통치를 위한 청사들과 병영 및 현병, 경찰서들을 세우면서 역사적인 건축문화유산들을 모조리 파괴하였으며 성곽, 성지, 옛 성터들도 가차 없이 혹심하게 파괴하였다. 그리고 사원 유물에서 중심적인 지위에 있는 불상은 매수, 공갈, 사기 등 갖은 수단과 방법으로 랴탈하였으며 석조 미술품, 조선종들을 모두 파괴하였다.

이와 함께 일제는 수많은 석탑을 랴취했을 뿐 아니라 석탑 속의 부장품인 사리장치 유물 즉 금, 은 혹은 금동제의 불상, 보탑, 사리병들을 랴탈하기 위해 탑을 폭파하거나 까부시였다. 1930년대 중엽에는 개성시에 있는 고려시기 현화사 7층 석탑의 사리장치를 랴탈하기 위해 비가 쏟아지고 번개가 치는 깊은 밤을 리용하여 탑을 폭파하고 유물을 절취하였다.

이렇게 파괴되고 랴탈당한 석탑의 수는 헤아릴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일제는 석등, 부도, 비석, 불국사 다보탑의 돌사자와 사리탑 등은 물론 왕이나 애국명장들의 업적을 기록한 수많은 비석들도 랴탈하거나 파괴해버리였다.

참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일제의 건축문화유산 파괴·략탈이야말로 야만적인 범죄 행위의 극치이다.

세월이 아무리 흐른다고 해도 일제의 이 만고대 죄악은 반드시 결산될 것이다.

본사기자

민족문화유산 고구려 무덤 벽화 (2)

수세기에 걸쳐 그려진 고구려의 무덤 벽화들은 벽화의 주제와 구성, 형상 기법 등에서 당대 고구려 회화의 높은 발전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무덤 벽화들은 벽화 자체가 가지는 특성으로부터 하나의 공간 구성 안에 조상화, 풍속화, 풍경화 등의 현실 주제화들과 신앙과 전설 등을 반영한 비현실 주제화들, 별자리와 장식 무늬 등 다채로운 요소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

특히 무덤 벽화들에서 인물 풍속 주제의 그림들은 거기에 반영된 다양한 생활 세부 들로 하여 당대 고구려의 역사와 문화, 생활 풍속들을 생동하게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역사 박물관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고구려 무덤 벽화는 형식이 다양하며 매우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인물 풍속도를 중심으로 한 무덤 벽화들에는 인물 초상, 풍속, 풍경, 동물, 정물, 꽃과 새, 기타 장식적 및 상징적인 무늬 등이 종합적으로 그려져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인물 풍속을 그린 그림으로서 대표적인 것은 고국원왕릉, 춤무덤, 씨름무덤, 장천무덤, 쌍기동 무덤 등에 그려진 벽화들이다.

인물 풍속도 무덤 벽화들은 해당 인물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잘 그려졌다. 인물 풍속도를 기본 주제로 하는 무덤 벽화들에서는 말라고 활을 쏘며 짐승들을 쳐는 사냥장면과 왕과 귀족들의 실내 생활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생활 풍습이 잘 나타나 있으며 당시 봉건적인 계급 관계 그리고 경제, 기술, 문화, 도덕, 군사 각 분야의 생활도 여러 모로 풍부하게 반영되어 있다.

고구려 무덤 벽화들 가운데는 풍경을 그린 것도 있다.

무덤 벽화들에 묘사된 자연 환경은 극히 소박하고 다른 소재의 그림들과 같이 그려져 있는 것이 대반이지만 거기에서는 인간들의 생활을 자연과의 호상련 관속에서 관찰하여 묘사하려는 화가들의 새로운 지향을 찾아볼 수 있다.

고구려 무덤 벽화의 내용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이른바 음양 오행 설을 반영하여 나온 방위 신들을 그린 사신도이다. 그림의 내용은 동쪽에 청룡, 서쪽에 백호, 남쪽에 주작, 북쪽에 현무를 배치하여 사방을 지킨다는 상징적이며 환상적인 동물들을 형상화한 것인지만 그림들에서

는 당시 고구려인민들의 정신 영역에 지배 하던 신앙심과 함께 고구려 사람들의 성격적 기질도 보이고 있다. 사신도로서 대표적인 무덤 벽화들로서는 강서 큰 무덤과 강서 중 무덤에 그려진 사신도들이다.

고구려 무덤 벽화들은 벽화 구성에서 세련된 경지를 보여주고 있다.

무덤의 구조와 벽화 내용을 유기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하여 매개의 화폭들을 건축 구조와 벽면이 가지는 상징성에 맞게 배치함으로써 무덤 안이 벽화들로 하여 하나의 통일된 조화를 이루고 있다.

또한 전체 벽화 구성과의 관계에서도 개개의 그림들이 그 하나만으로도 독자적으로 완성된 작품의 가치를 가지면서 벽면의 다른 내용의 그림들과 무리 없이 잘 어울리여 연속화 형식의 화폭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인물 초상으로부터 인물 풍속화, 풍경화, 동물화, 정물화, 장식 무늬에 이르기까지 회화의 여러 종류를 담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고유한 형상 체계와 세련된 조형적 표현 수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무덤 벽화의 독특한 예술적 경지를 개척해놓았다. 뿐만 아니라 고구려 무덤 벽화들에서는 벽화 구성에서 일련의 류형성을 가지면서도 작품의 소재와 형상에서는 반복이 없고 개성이 뚜렷한 화폭들을 창조함으로써 매 무덤마다에서 피장자의 성격과 취미, 기호 등도 훌륭히 나타내고 있다.

고구려 무덤 벽화들은 벽화의 형상 창조에 쓰인 독특한 기법, 그것을 담당한 화가들의 높은 능력으로 하여 회화성이 보장되어 있다.

고구려 화가들은 그림을 그리는데 있어서 묘사 대상의 본질을 파악하고 단숨에 그려내는 세련된 선과 색, 힘 있는 필치 등을 능동적으로 구사하여 힘 있고 아름다운 형상을 창조하였다.

이렇듯 다양하고 풍부한 내용과 대담하고 기발하며 주도 세밀한 구성, 풍부한 회화적 기교로 하여 고구려 무덤 벽화는 우리 나라 세나라 시기뿐 아니라 중세 미술의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세계 문화사의 한 페지를 빛나게 장식한 인류 공동의 문화적 재부로 인정을 받고 있다.

고구려 무덤 벽화는 주체 93(2004)년 7월 세계 문화 유산으로 등록되었다.

사회과학원 실장 박사 조희남

소년시절의 유류

고구려 2대왕 유류는 시조 고주몽의 맏아들로서 주몽이 동부여에 있는 동안 자기의 첫 안해 혜씨와의 사이에서 본 아들이였다.

그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소년시절을 어머니 혜씨와 할머니 류화의 손에서 자랐다. 그는 주몽의 아들로서 일찍 부터 아버지의 기상에 못지 않을 만큼 영특하였으며 활쏘기를 즐겨하였다.

그가 일곱살때의 일이다.

어느날 유류는 활을 쏘다가 잘못하여 남의 집 아낙네의 물동이를 깨뜨리였다.

아낙네의 외마디소리와 함께 그의 머리우에서 물동이가 박산이 나는 바람에 온몸에 물벼락을 맞았다.

아낙네는 《애비없이 자란 후례자식같으니, 그래 네 집에서 누가 남의 물동이에다 대고 활을 쏘라고 가르치더냐.》라며 되알지게 쏘아붙였다.

유류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말이 없었다.

아낙네가 집으로 돌아가자 유류는 어안이 벙벙하여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다.

그는 아낙네의 욕설이 가슴에서 내려가지 않았다.

(나에게 아버지가 없다니?)

이것은 그에게 있어서 혼자서는 풀 길이 없는 의혹이기도 하였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어머니 혜씨에게 어푸러지며 목메인 소리로 물었다.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어데 갔어요?》

유류는 침을 삼키며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아들의 질문이 뜻밖이었던 혜

씨는 한참동안 대답이 없었다.

그러다가 아들의 불같은 독촉에 무슨 결심을 한 모양으로 무겁게 입을 열었다.

《유류야, 너에게도 아버지가 계신단다. 아버지없는 아이가 어데 있겠느냐. 게다가 너의 아버지는 이만저만한분이 아니시란다.》

어머니는 그를 옆에 끌어았히고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말을 이었다.

《너의 아버지가 이곳 부여땅에 계실 때 금와왕과 그의 맏아들 대소가 시기를 하여 자기를 죽이려 하기에 몰래 이 나라에서 몸을 피하여 달아나시였다.

그래서 지금은 비류수란 강근처에 고구려란 나라를 세우고 그 곳에서 임금노릇을 하신단다.》

그리며 어머니는 시어머니가 남편을 도망하게 한 사실과 오이, 마리, 협보 등 세사람과 함께 동부여를 떠난 전말을 자세히 말하였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유류는 고구려에 가서 아버지를 찾겠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는 고개를 흔들어 아들을 말리며 이런 말을 하였다.

그의 친한 벗들도 함께 떠났다. 드디어 고구려의 도읍 출본에 도달한 그는 아버지에게 그 검을 바치고 사연을 고하였다.

아버지가 그가 가져온 검을 자기 칼집에 끊어보니 딱 들어가맞았다. 아버지는 그를 반가이 맞이하였으며 유류를 자기의 뒤를 이을 태자로 정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아버지 동명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 그가 바로 고구려 2대왕 유류였다.

고 먹을것을 싸가지고 단호히 집을 나섰다. 어머니도 아들을 말리지 않았다.

유류는 날이 채 밝기 전에 집을 나섰다가 밤이 늦어 돌아왔지만 도저히 일곱모난 돌을 찾을수 없었다. 아들의 정상이 보기 딱해 어머니는 같이 찾자고 말했지만 유류는 아버지가 자기를 시험해보자고 하신 일이 분명하다며 혼자서 길을 떠났다.

그러던 어느날 자기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큰 다락의 기둥을 받치고 선 주추돌에 시선이 멎었다. 그 기둥을 받치고 선 주추돌이 바로 일곱모가 난 돌이였기 때문이였다.

기둥은 소나무였다.

유류는 환성을 지르며 그 기둥밑을 파헤쳤다.

그곳에서는 이미 녹이 쓴 집이 없는 검 한자루가 나졌다.

유류는 그 검을 들고 어머니에게로 달려갔다. 어머니는 그 검이 아버지가 쓰던것이라고 이야기해주었다.

며칠이 지나 유류는 행장을 갖추고 고구려땅을 찾아 먼길을 떠났다.

그의 친한 벗들도 함께 떠났다.

드디어 고구려의 도읍 출본에 도달한 그는 아버지에게 그 검을 바치고 사연을 고하였다.

아버지가 그가 가져온 검을 자기 칼집에 끊어보니 딱 들어가맞았다. 아버지는 그를 반가이 맞이하였으며 유류를 자기의 뒤를 이을 태자로 정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아버지 동명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 그가 바로 고구려 2대왕 유류였다.

* * *

강원도의 역사유적을 찾아서 (1)

- 석왕사 -



응진전앞의 룽비루와 인자료

석왕사는 강원도 고성군 설봉리에 있는 절이다.

석왕사는 동쪽으로 트인 깊은 골짜기에 남향한 두개의 기본구 성축을 이루고 있다.

웃쪽의 건축군은 응진전을 기본으로 하여 이루어진것이고 아래쪽의것은 대웅전을 기본으로 하여 이루어진것이다.

석왕사로 들어가는 첫문을 불이문이라고 하고 두번째 문을 조계문이라고 한다.

조계문을 지나면 서쪽방향으로 합각지붕의 날씬한 2층다락인 설성동루가 있다.

석왕사의 중심구역에 이르러 아래중심축 북쪽 깊숙한 곳에 대웅전이 자리잡고있다.

대웅전은 정면 5간, 측면 3간



에 겹쳐마합각지붕건물이다. 이 건물에는 화려한 금단청을 입히고 문살들에 기하학적무늬를 섬세하게 새겨 건물전체가 화려한 조형예술품처럼 단장되어있다.

대웅전안에는 부처를 그린 그림들이 걸려있고 9개의 부처가 놓여있다.

석왕사의 웃쪽 중심축 북쪽에는 이 절간의 기본 건물의 하나인 응진전이 자리잡고있다.

고려말기의 건물을 대표하는 응진전은 비교적 높이 쌓은 기단위에 정면

대웅전의 내부와 외부



5간, 측면 2간의 긴 배집이다. 응진 전 안에는 석가여래상을 중심으로 500라한상이 놓여 있다.

응진 전 앞에는 룽비루와 인자료가 가지런히 서있다.

이외에도 석왕사에는 만궁당, 심검당을 비롯하여 크고작은 건축물들이 있다.

오늘 석왕사는 고려말기로부터 조선봉건왕조시기에 이르기까지의 선조들의 우수한 건축술을 보여주는 귀중한 문화유산으로서 잘 보존관리되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강무

봄철영양식품 - 호박

동포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산에 또다시 봄계절이 왔습니다.

봄의 훈향에 이끌려 사람들 누구나가 마음도 흥그리워만 지는 이 계절에 사람들은 강산에 만발하는 꽃처럼 환한 미소를 지으며 활기에 넘쳐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몸이 나른해진다거나 무기력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라는 기자의 물음에 권위있는 평양의 학대학 교수 박사 리영은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만성질병이 있는 사람들 속에서 주로 봄철에 어지럼증과 경련, 불면증 등이 나타나곤 합니다. 그 원인은 몸안에 마그네시움과 동, 아연, 린이 부족한데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인체가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게 되므로 사람들은 열량이 크고 비타민과 광물질, 항산화물질이 풍부한 식품을 먹는것이 좋다고 합니다.

봄철영양식품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비타민과 광물질이 독특하게 함유되어 있는 호박이 그저 그만입니다.

아마도 동포여러분 가운데는 박파에 속하는 한 해살이 열매남새작물인 호박을 모르는분들이 없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국의 인기가요인 『조국이 없어보라』의 첫 구절인 『하얀 박꽃이 피는 내 집은 어디 있나…』에도 있듯이 박은 오래전부터 조선민족의 생활속에 친근하게 자리잡고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박과 호박속에는 20여종이 있는데 그 종에 따라 기원지는 서로 다릅니다.



우리 조국에서는 B.C. 3~4세기 이전부터 조선호박이, 7세기 이전부터 떡호박이, 1940년경부터 올호박이 재배되었습니다.

호박은 뿌리가 왕성하게 뻗고 토양속의 영양물을 흡수하는 힘이 세기때문에 어떤 토양에서도 잘 자랍니다.

호박은 비타민과 광물질을 독특하게 함유하고 있으며 결껍질이 두꺼운것으로 하여 영양성분 보존성이 매우 좋습니다.

호박살에는 카로틴 함량이 홍당무우보다 5배나 많습니다. 카로틴 즉 프로비타민A는 시력과 피부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항산화작용을 합니다.

호박에서 비타민의 종류와 함량은 품종과 익은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열매가 익어감에 따라 비타민A 함량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호박에 들어있는 당질의 대부분이 포도당이므로 소화흡수가 잘되기 때문에 위장이 약하거나 회복기환자들의 치료식사에 리용되기도 합니다.

호박은 위염과 궤양, 빈혈증 등 봄철에 심해지는 많은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는데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회충구제, 오줌내기, 인후염과 간질병치료에도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럼 호박의 리용방법에 대해 보기로 합시다.

우선 호박을 열매채로 선선한 온도에서 저장해 두었다가 비타민이 부족되는 겨울과 봄에 먹으면 좋고 봄과 가을에 호박열매를 썰어 해빛에서 말린 오가리를 겨울철부식물로 리용할 수 있습니다.

오가리는 물에 충분히 불구었다가 기름에 볶으면 별맛을 내는 밥반찬이 됩니다.

이밖에도 겨울에 보관하였던 떡호박의 속살과 쌀가루를 섞어 시루떡을 만들 수도 있으며 때이르게 온실에서 자래운 애호박으로 찜이나 나물, 짜임, 전 등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침판에서 노릇노릇하게 지진 따끈따끈한 애호박지짐을 초간장에 곁들여 먹거나 채친 호박으로 만든 애호박나물 등을 먹으면 봄철에 떨어졌던 입맛도 돌릴 수 있고 몸에 필요한 영양물질도 보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민족이 오래전부터 식생활에 널리 리용하여 왔고 오늘날 봄철영양식품으로 손꼽히는 호박을 즐겨 드시기를 바랍니다.

본사기자 연옥

조국의 각 도 특산물들 (16)

함경남도의 특산물 - 함흥감자농마국수

지난날 함경남도에서는 콩, 조, 수수, 감자, 쇠 등이 잘되어 주식물에서 큰 뜻을 차지하였다. 특히 감자는 품질과 맛이 좋아 유명하였으며 감자음식이 전국적으로 가장 발전하였다.

19세기에 편찬된 『오주연문장전산고』에 의하면 감자는 1824~1825년에 함경도지방에 처음 들어와 수십년사이에 전국에 보급되었다.



감자에는 물기, 농마, 단백질, 기름함량이 적당하며 여러가지 비타민들도 있다.

감자로는 감자밥, 감자떡, 언감자떡, 언감자국수, 감자농마국수 등을 만들어 먹었다.

함경남도의 여러 지방에서 만든 농마국수가운데서 함흥의 감자농마국수가 가장 유명하였다.

함흥의 감자농마국수는 평안도의 메밀랭면과도 견줄만 한 이름난 음식이였다.

만드는 방법을 보면 감자농마를 익반죽하여 국수사리를 만들고 간장, 고추가루, 후추가루, 참기름, 다진 마늘, 깨가루 등을 섞어 양념장을 만든다.

국수사리에 양념장을 두고 끓고루 비빈 다음 사리를 지어 그릇에 담고 김치와 고기꾸미, 오이, 실닭알을 얹은 다음 고기국물을 끊는다.

감자농마의 국수오리는 메밀국수나 밀국수보다 질기고 윤택이 있으며 오돌오돌 씹히는것이 특징이다.

꾸미로서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꿩고기 등을 놓았으며 바다를 낀 곳에서는 명태, 가재미 등의 회를 꾸미로 쓰기도 하였다.

함흥감자농마국수는 오늘도 조국인민들속에서 인기있는 음식으로 널리 리용되고 있다.

사회과학원 연구사 황보은

유모야

교조주의자

한 부자가 하늘소를 팔려 시장에 갔지만 만나절이 지나도 사려는 사람이 없었다.

지나가던 농군이 『당신이 하늘소의 좋은 점을 말하지 않으면 누가 사겠소.』 하고는 하늘소를 끌고 걸어가며 이렇게 말했다.

『이 하늘소는 먹기도 잘하고 살도 찌고 젖통도 큰데다 새끼까지 가졌다오. 석달만 있으면 새끼를 낳습니다. 사가는 사람은 횡재하지요!』

하늘소는 인차 팔렸다. 부자는 탄복하였다.

여칠후 중매군이 부자의 딸을 보러 왔다. 부자는 농군의 경험을 본받아 『우리 딸은 먹기도 잘하고 살도 찌고 가슴이 큰데다 아이도 가졌소. 석달만 있으면 아들을 낳을거요. 데려가는 집에서야 횡재하지요!』라고 자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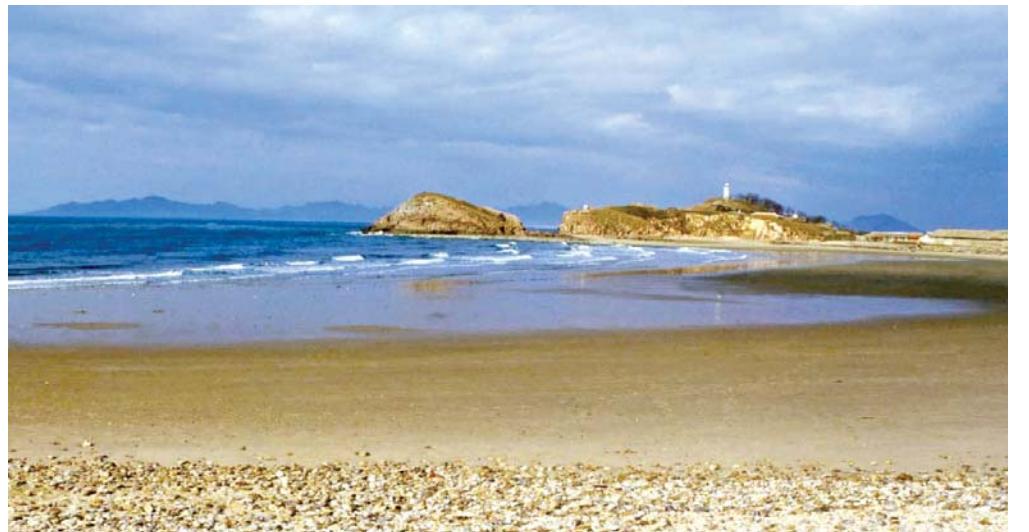
* * *

명승－옹골포



동금포의 코끼리바위

백사장의 일부



동금포사구

조국의 이름난 명승지들 가운데에는 황해남도 통연군의 몽금포도 있다.

몽금포라는 이름은 황금무지우에서 꿈을 꾸었다는 전설에서 유래되었다.

몽금포는 조선서해안의 대표적인 명승지로서 오랜 옛날부터 우리 인민들속에서 《백사정》, 《금사십리》로 불리워 왔다.

흰 모래불과 붉은 해당화, 푸른 소나무들이 하나로 어울려 이채로운 경치를 자아내는 해안가와 아름답고 기묘한 기암절벽들은 몽금포의 기본경치를 이룬다.

모래불은 해빛을 받아 눈이 부시게 수정처럼 빛나며 금빛을 낸다고 하여 《금사십리》로 알려졌다.

그런가 하면 백사장에 해당화가 만발하게 피어날 때는 마치 흰 비단필우에 붉은 꽃을 수놓은듯 하고 《눈무지》, 《수정산》과 같은 모래언덕들은 몽금포의 자연경치를 더욱 돋구어준다.

몽금포에는 흰 모래불에 푸른 소나무숲이 병풍처럼 둘러선 《백사청송》으로 소문난 좋은 휴식터도 있다.

그리고 백사장기슭의 바다풀은 맑고 깨끗하며 하얀 모래는 젖은 몸에 붙었다가도 마르면 잘 떨어지므로 해수욕을 즐기기에는 그저그만이다.

이뿐이 아니다. 해질무렵 몽금포의 저녁경치는 금강산의 해돋이경치를 방불케 한다.

마치 용광로의 쇠물처럼 온 바다가 끓어번지면서 붉은 파도가 설레이고 여기에 만선기 휘날리며 포구로 돌아오는 고기배들과 이를 반기는듯 떠도는 갈매기떼가 하나로 조화된 경치는 몽금포의 대표적인 경치로서 《금산락조》로 일컬어왔다.

이외에도 몽금포에는 육중한 코끼리가 긴 《코》를 바다풀에 드리우고 물을 마시는것 같은 코끼리바위를 비롯하여 고래바위, 마당바위, 병풍바위 등의 기암괴석들과 바다벼랑, 바다굴들이 있어 마치 금강산의 만물상, 해금강과 총석정을 방불케 한다.

오늘 인민의 문화휴양지로 홀륭히 변모된 몽금포로는 조국인민들과 해외동포들, 외국인들이 수많이 찾아와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고 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임철명

빨간 구슬과 파란 구슬

어느해 늦은 가을날 착한동이네 집에서는 량식이 떨어져 아침밥을 짓지 못했습니다.

착한동이는 생각다 못해 육심동이네 집에 찾아가 쌀 몇 되박만 구어달라고 사정하였습니다. 그러자 육심동이는 가난뱅이한테 꾸어줄 쌀은 없다고 쿄웃음을 치면서 대문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착한동이가 맥없이 돌아서서 발길가는대로 터벅터벅 걸어가 다보니 빼기발이 나쳤습니다.

가을걸이를 끌낸지 오랜 뼈기발은 텅 비여있었지만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어 허리를 굽혀 밭고랑사이를 찬찬히 살펴보던 그는 가랑잎사이에서 강냉이 한이삭을 발견하였습니다.

착한동이는 강냉이를 품속에 고이 감싸안고 집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바로 그때 등뒤에서 착한동 이를 찾는 애처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얼른 돌아보니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지팽이를 든 한 할머니가 쓰러져있었습니다. 착한동이는 급히 달려가 할머니를 안아일으키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편치 않으십니까? 그럼 우리 집에 가서 쉬여가십시오.》

《팬찮네. 난 오늘중으로 저 산을 꼭 넘어야 하네. 그런데 젊은이, 먹을게 좀 없나? 점심을 건넸더니 허기증이 나서 걸을수가 없구만.》

착한동이는 이것저것 생각할 새없이 밭에서 주은 강냉이 한이삭을 선뜻 내놓았습니다.

《할머니, 저한테는 이것밖

에 없습니다. 제가 불을 피워 구워드릴테니 잠간만 기다리십시오.》

그러자 할머니는 강냉이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아니, 일없네. 그거 내 손으로 하지. 보아하니 임자는 착한 젊은이로구만. 이 신세를 어떻게 갚으면 좋을까?》

《할머니두, 그게 무슨 신세라고 그리십니까.》

《여보게 젊은이, 내 말을 잘듣게. 저 앞산기슭에 가면 몇백년 묵은 늙은 소나무 한그루가 서있는데 그밑에 파란 구슬과 빨간 구슬이 놓여있을걸세. 파란 구슬을 가져다가 임자네 집뜨락에 던져보라구.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길걸세. 그런데 꼭 명심할것은 빨간 구슬을 절대로 가져서는 안된다는것일세. 자, 그럼 어서 가보게.》

착한동이는 할머니가 일러준대로 파란 구슬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착한동이는 토방우에 앉아 파란 구슬을 던졌습니다. 파란 구슬은 굴러가다가 마당 한가운데 멈춰섰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음메—》하는 영각소리가 나더니 황소한마리가 나타났습니다.

파란 구슬을 또 한번 던지니 이번에는 황소 두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정말 신기한 보물이였습니다. 던지면 던질수록 황소가 끊이나 자꾸자꾸 나왔습니다.

착한동이는 그 많은 황소를 저 혼자 가지지 않고 가난한 동네사람들에게 끌고루 나누어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육심동이가 헐떡거리며 착한동이네 집으로 찾아와 황소부자가 된 이야기를 듣고 그길로 빼기발으로 달려가 강냉이 한이삭을 주어들었습니다.

이윽고 그는 꼬불꼬불한 산속길로 걸어가는 할머니를 발견하였습니다.

《할머니, 게 좀 서있으라구요. 나 좀 봅시다.》

육심동이는 할머니앞에 강냉이이삭을 쑥 내밀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걸 줄테니 나한테도 신기한 구슬이 있는 곳을 알려주시우.》

강냉이를 받아들고나서 한동안 아무말없이 서있던 할머니는 착한동이에게 말했던것을 그대로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육심동이는 빨간 구슬과 파란 구슬을 모두 움켜쥔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육심에 눈이 어두워진 육심동이는 파란 구슬과 빨간 구슬을 한꺼번에 훌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성난 황소와 성난 호랑이가 똑같이 나왔습니다.

성난 황소가 나오자바람으로 코김을 씩—하고 내뿜더니 육심동이를 뿔로 받아넘기자 으르렁대던 호랑이는 육심동이의 목덜미를 덥석 물고 사라졌습니다.

이리하여 별의별 못된짓을 다하면서 자기 육심만 차리던 육심동이는 호랑이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씨고운 착한동이는 아들딸들을 시집장가보내고 동네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오래오래 잘살았다고 합니다.

* * *

《금강산》화장품

영양성분과 약효성분이 뛰여나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개성고려인삼을 주원료로 하고 천하제일 명산 금강산에서 자라는 30여종의 천연식물의 추출물을 배합한 《금강산》화장품.

개성고려인삼화장품, 생물나노셀렌화장품, 비타민화장품, 로화방지화장품, 보습, 영양강화화장품을 비롯하여 그 종수는 대단히 많다.

피부의 신진대사를 활성화하고 로화를 방지하며 피부탄성과 미백, 보습효과가 뚜렷한것으로 하여 《금강산》화장품은 너성들의 인기를 모으고있다.

* * *





모란봉에서 본 릉라도 본사기자 김춘혁

소나무숲이 울창한 모란봉의 봄 풍치도 볼만 하지만 모란봉에서 내려다 보는 릉라도의 경치는 더욱 장관이다.

현대적인 5월 1일 경기장과 릉라습 등어 판, 릉라유희장을 비롯하여 인민의 유원지로 출렁히 전변된 릉라도의 봄 경치는 볼 수록 아름답다.

